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과 공감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Media Exposure, and Empathy on Adolescents' Xenophobia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황 미 애

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과 공감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미 나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황 미 애

황미애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방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다. 제노포비아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방인 집단과의 공존을 위해 인간 존중, 평등, 타인 배려 등의 가치와 태도를 지니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필수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제노포비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차별적 태도인 제노포비아 그 자체이며, 그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지배이론(social dominance theory)의 관점에서 제노포비아의 심리적 원인으로 외집단을 지배하려는 욕구 경향성인 사회지배성향에 주목하였다.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 및 배양가설(cultivation hypothesis)의 관점에서 제노포비아의 사회적 원인으로 이방인 관련 긍정적 혹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편견과 차별 해소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감도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지배성향 및 부정적 미디어 노출로 인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발현되기 어려워 제노포비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여 제노포비아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지배성향과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420명을 편의

표집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 23.0) 및 SPSS PROCESS Macro(Ver. 3.3)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회지배성향,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지배성향 및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검증 절차와 더불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를 완화한 반면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된 반면,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지배성향으로 인한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심과 사회 정의를 권장하는 가치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류 집단끼리의 폐쇄적이고 '강한 연대(strong ties)'의 '우리'가 아니라 주류집단과 이방인 사이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진 '느슨한 연대(weak ties)'의 '우리'를 교육과정 안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라는 범주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을 포함하게 될 때 사회지배성향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대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을 활용하여 제노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관련해서는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메시지의 편향된 재현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제작하는)' 경험이 사회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해서는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함양하는 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제노포비아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자신의 내집단 편을 들기 때문에 주류집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로 인해 이방인 혐오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 간과해 온 공감의 한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공감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다문화 공감 교육이 '이방인을 포용하는 공감 교육'과 더불어 '공감의 한계'에 대한 문제까지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다문화 공감 교육은 이방인을 이해하거나 함께 느끼는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공감이 어떻게 왜곡·과장되는지의 문제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제노포비아, 이방인 혐오, 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 공감, 청소년

학 번 : 2010-30393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가설 ····· 8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3

1) 연구의 의의 ····· 13

2) 연구의 한계 ····· 15

4. 용어의 정의 ····· 17

1)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 ····· 17

2) 이방인 ····· 18

3) 사회지배성향 ····· 19

4) 미디어 노출 ····· 19

5) 공감 ····· 21

Ⅱ. 이론적 배경 ····· 22

1.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 ····· 22

1) 제노포비아의 개념 및 유형 ····· 22

2) 제노포비아의 유발 요인 ····· 27

3)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 ····· 35

2. 사회지배성향 ····· 40

1) 사회지배성향의 의미 ····· 40

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 42

3. 미디어 노출 ····· 45

1)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 ····· 45

2)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 46

4. 공감 ····· 53
1) 공감의 개념과 효과 ····· 53
2) 공감의 한계: 공감과 제노포비아 ····· 57
3) 사회지배성향,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 ····· 61
4) 미디어 노출,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 ····· 65

Ⅲ. 연구 설계 ····· 68
1. 연구 대상 ····· 68
2. 선정 변인과 측정 도구 ····· 73
1) 종속 변인과 측정 도구 ····· 73
2) 독립 변인과 측정 도구 ····· 76
(1) 사회지배성향 ····· 76
(2) 미디어 노출 ····· 77
3) 매개 변인과 측정 도구 ····· 79
4) 통제 변인과 측정 도구 ····· 81
3. 분석 방법 ····· 83

Ⅳ. 연구 결과 ····· 87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78
2. 주요 변인의 기술적 특징 ····· 88
3. 사회지배성향 및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 91
4.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 ····· 99

1)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 ····· 96
2)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 ····· 99
3)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 ····· 102

Ⅴ. 결론 ····· 105
1. 요약 및 논의 ····· 105
2. 제언 ····· 115

참고문헌 ····· 119

부록－설문지 ····· 143

Abstract ····· 149

표 목 차

[표 Ⅱ-1] Jones(2011)의 제노포비아 유형 분류 ····· 52
[표 Ⅱ-2] 제노포비아 정도에 따른 Bavin(2007)의 유형 분류 ····· 62
[표 Ⅱ-3] 공감의 정의 ····· 45
[표 Ⅲ-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제노포비아 관련 대단원 및 성취기준 ····· 70
[표 Ⅲ-2] 제노포비아 측정 문항의 구성 ····· 77
[표 Ⅲ-3] 사회지배성향 측정 문항의 구성 ····· 77
[표 Ⅲ-4]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측정 문항의 구성 ····· 78
[표 Ⅲ-5] 이방인에 대한 공감 측정 문항의 구성 ····· 80
[표 Ⅳ-1] 조사대상자의 특성 ····· 88
[표 Ⅳ-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 90
[표 Ⅳ-3]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에 따른 제노포비아 변화 회귀분석 ····· 92
[표 Ⅳ-4]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 효과 ·· 96
[표 Ⅳ-5]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 효과 분석: 사회지배성향 ····· 98
[표 Ⅳ-6]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 효과 ····· 99
[표 Ⅳ-7]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 효과 분석: 긍정적 미디어 노출 ····· 101
[표 Ⅳ-8]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 102
[표 Ⅳ-9]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 효과 분석: 부정적 미디어 노출 ····· 103
[표 Ⅴ-1] 연구 가설 검증 결과 ····· 107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모형 ····· 21

[그림 Ⅳ-1] 매개 효과 분석모형 ····· 49

[그림 Ⅳ-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공감의 부분매개모형 ····· 98

[그림 Ⅳ-3]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공감의 완전매개모형 ····· 101

[그림 Ⅳ-4]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 10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후반 우리 사회는 '다문화 열풍'이라 불릴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정부, 시민단체, 교육계는 물론 국민까지도 "다문화란 옳고 바른 것"으로 인식하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반(反)다문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이방인들을 우리 사회의 질서와 복지 제도 등을 흔드는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강진구, 2012; 김현희, 2016). 여기에 최근에는 이방인 혐오 정서까지 더해지고 있다. '짱개(중국인 비하)', '똥남아(아시아계 외국인 비하)', '흑형(흑인형의 줄임말)', '외노자(외국인노동자의 줄임말)', '다문화(다문화가정 자녀의 줄임말)' 등 이방인 혐오 표현들이 일상적 단어로 확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1] 이 같은 상황 속에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이방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며, 혐오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 그에 따라 전지구적 현상이 되

1) 단순 줄임말이라고 해도 활용될 때 맥락상 대상을 희화화 또는 비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면 차별 표현으로 볼 수 있다(박경태, 2009). 특히 '다문화'라는 용어는 원래는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바람직한 용어이지만, 최근 사회 및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차별되는 집단'으로 변질·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은 수업 끝나면 모이세요."라고 방송한 일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여성신문, 2019.06.17.). 다문화는 우리 사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특정한 개인에게 '다문화'라는 호칭을 취할 때에는 이방인임을 구별하는 혐오적 표현이 될 수 있다.

고 있는 이방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우리나라에서도 발현·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노포비아는 외부인으로 인지되는 개인·집단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hatred of strangers)'을 뜻한다(Cashmore, 1994: 346). 연구자들은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가 맹아기를 넘어 확장일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윤인진, 2016; 한희정, 2016). 우리나라 국민은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범죄·일자리 등 측면에서 이방인이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혐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운, 2016). 이에 대응하여 국내 거주 이방인 역시 내국인들의 외집단 인식,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양계민, 2010; 구정우 외, 2016).

제노포비아로 인한 폐해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일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인권과 복지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혐오는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발생한 이주민 소요의 배경에는 원주민들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반발심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이종원, 2014).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첨예하면서도 시급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노포비아 문제는 민주시민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사회과(social studies)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방인 집단들과의 공존은 인간 존중, 평등, 타인 배려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되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모경환·임정수,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포비아 문제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 내용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다문화 교육의 도입에 따라 타문화 이해, 관용, 존중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노포비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조영달 외, 2010). 대신에 지금까지의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 교육의 다수연

구들은 이방인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과 태도로서 '다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이철현, 2013; 박하나, 2015; 강하윤, 2017)이나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황정미, 2010; 이자형·김경근, 2013; 최지영·김재철, 2015; 김미진·김경은, 2018)[2] 등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 감수성 등은 연구의 취지에 따라 폭넓게 정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감수성은 문화적 차이를 구별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Hammer, Bennett, & Wiseman, 2003: 422),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열린 마음, 타문화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능력(Bhawuk & Brislin, 1992: 413) 등 개념에 있어서 다양한 규정이 가능하다. 최정하·김영화(2013)는 교육적·학문적 관심을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둔다면 포괄적인 다문화 감수성 같은 개념보다는 제노포비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의미의 명료함을 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다문화 감수성 등은 다른 문화 집단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Chen & Starosta, 2000).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문화적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거되어야 할 인식'인 제노포비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이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제노포비아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노포비아는 '인화성'이 큰 현상이다. 2011년 소수자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잉글랜드 인종 폭동, 2019년 이슬람 이주에 불만을 가진 20대 청년이 일으킨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 등은 제노포비아가 폭동 및 테러로 발화된 사례이다. 제노포비아가 이와 같은 행동 단계로 발화

2) 황정미(2010)는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인종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자형·김경근(2013)은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용하는 의식 정도"로 규정하는 등 다문화 수용성 개념 역시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다양하고 폭넓게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노포비아를 예방·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노포비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즉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야 한다.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하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도록 돕거나 관련 교육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과교육 혹은 다문화교육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미디어 노출과 사회지배성향, 공감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청소년들이 이방인을 접하는 가장 주된 통로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이기 때문이다(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2016). 평소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묘사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부정적·반사회적인 존재로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허윤철·임영호, 2015; 김현희, 2016). 이방인들은 강력 범죄나 질병–외국인 관련 폭행 및 살인 사건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은–등과 연관되어 미디어에 자주 재현된다. 이방인에 대한 왜곡된 재현이 공명(resonance)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존재 인식은 두려움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고정관념화될 수 있다. 텔레비전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텔레비전에 묘사된 이미지와 이데올로기를 현실 세계에 더 많이 반영하게 된다는 배양가설(cultivation hypothesis)은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 형성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사회적·정치적 태도를 나타내는 성격적 특성인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도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집단 간 관계를 위계적으로 보는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사회 내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성향이다(Pratto et al., 1994).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 집단 간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가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Altemeyer, 2004).

내국인들은 중동·인도 등지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초기에는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권력이 생기면 제노포비아가 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된 일이 반다문화 감정과 제노포비아를 촉발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3] 내국인들은 이방인이 3D 업종(내국인이 꺼려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고임금시장)'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이방인을 '세계화의 하인들(servants of globalization)'(Parreñas, 2001/2009)로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지배성향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사회지배성향은 이방인을 사회의 하위계급에 있어야 할 집단으로 인식하게 한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폄하하고, 그들이 차별받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Sidanius & Pratto, 2001). 사회지배성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방인을 혐오하는 것 즉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근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지배성향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으로 공감(empathy)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감은 타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대리적으로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이다. 다수연구들에서 공감은 도움 행동, 친사회적 행동, 이타주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rebs, 1975; Batson et al., 1981; Eisenberg & Miller, 1987; Schaller & Cialdini, 1988; Batson & Ahmad, 2009). 더불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공감은 상대방을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주고, 이방인 등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하는 중요

3)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민이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이주민 최초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녀는 국회의원이 되면서 사회운동을 하던 때와 달리 비난을 받았으며, 학력위조 논란과 많은 인신공격성 발언 등에 시달렸다(헤럴드경제, 2012.04.16.).

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Galinsky & Moskowitz, 2000; Banks, 2008; Andreychik & Gill, 2012).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공감이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사회지배성향, 긍정적·부정적 미디어 노출에 따라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해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한 공감의 의미를 재탐색하고, 공감 교육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감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하여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은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공감의 한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감을 할 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되어보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우리는 타인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며(Smith, 1759/2009), 높은 공감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Bloom,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초점 대상을 '이방인'으로 두고, 이로 인한 '공감의 한계'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감 교육의 방향을 재검토·확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이방인에 대해 공감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공감할지 여부를 선택할 때가 많다. 사람들 상호 간에 유사성(interpersonal similarity)이 있어야 상대를 공감하기로 선택한다는 뜻이다(De Waal, 2010/2017). 나와 친근한 개인 및 집단에게는 공감하지만, 다른 집단에게는 공감이 작동하기 어렵다. 자신과 '다른' 낯선 집단, 자신보다 '낮은' 사회 집단이라고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공감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공감은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방인

에 대한 긍정적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적게 공감하면서도, 이방인 범죄 등 부정적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는 더 크게 공감할 수 있다. '나도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혹은 '이방인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과장되고 비뚤어진 공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Hoffman, 2000/2011) 이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저해하여 오히려 제노포비아를 조장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수자인 학생들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제노포비아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제노포비아를 구성하는 다차원적 측면에 주목하여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한 열쇠를 찾으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과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사회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가설 1>에서는 사회지배성향에 따라 학생들의 제노포비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연구들(Pratto et al., 1994; Whitley, 1999; Altemeyer, 2004)은 외집단에 대한 차별·편견을 유발하는 개인의 내적 성향으로 사회지배성향(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을 언급하고 있다. 사회지배이론의 한 측면인 사회지배성향은 '인종, 국적 등에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성격적 특성'이다(Pratto et al., 1994). 이방인은 주류집단 학생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해야 할 외집단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회지배성향을 이방인 혐오의 주요한 예측 지표 및 영향요인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을 가질 자격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의 분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Sidanius & Pratto, 2001).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을 '사회적 자원을 가질 자격이 없는 집단'으

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들은 사회 내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서열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서열이 존재하는 것이 일정 부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평등한 위계질서가 자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위계질서를 위협할 잠재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지향성을 보인다(Altemeyer, 2004).

이렇게 볼 때,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에게 이방인은 사회적 위계질서를 위협할 잠재적 요인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방인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 정서 반응 즉 이방인 혐오적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사회 내 소수민족 등 소수집단의 사회적 평등 증진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Sidanius, Pratto, & Bobo, 1996; Perry & Sibley, 2012)은 사회지배성향이 이방인 혐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회지배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민족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이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들(Sidanius & Pratto, 2001; Esses et al., 2001)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가설 2】 미디어 노출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1 :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하위가설 2-2 :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주가설 2>에서는 미디어 노출이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둔다. 미디어에 의해 선별된 현실은 학생들의 현실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미디어는 다수집단 성원들이 이방인 등 여타의 사회 집단을 향한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정보원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사회적 경험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여 이방인과의 직접적 접촉 경험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존할 확률이 높다(김세은·김수아, 2008).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에 따르면 학생들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통해 실제 대면 접촉과 유사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디어를 통한 긍정적 접촉의 경험은 이방인 등 소수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이질감을 희석시키고 다수집단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다수의 연구가 보고하고 있다(추병완, 2012; 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따라서 이방인과 관련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하위가설 2-1>을 설정하였다.

반면 배양 가설(cultivation hypothesis)은 미디어가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킬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Gerbner와 동료들(1980)에 의하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 현실에 대한 왜곡된 상(像)'을 배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방인 관련 범죄 보도와 같은 미디어의 부정적 메시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세상을 '실제보다 더 위험하고 사악한 곳(mean world syndrome)'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정적 편견도 강화될 수 있다(Arendt & Northup, 2015).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제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하위가설 2-2>를 설정하였다.

【주가설 3】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가설 4】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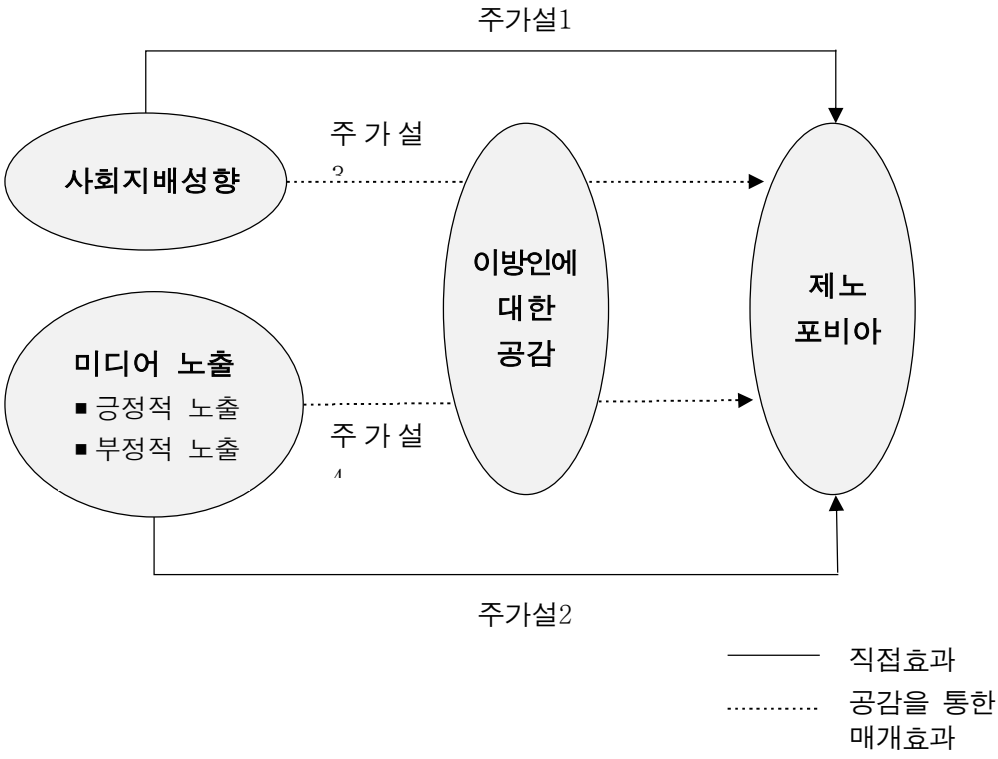
하위가설 4-1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위가설 4-2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가설 3>과 <주가설 4>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부족은 이방인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지배성향과 부적 관계를 통해 이방인과 같은 외집단에 대한 폭력적·공격적 태도인 제노포비아를 조장할 수 있다(Thomsen, Green, & Sidanius, 2008).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하여 제노포비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주가설 3>을 설정하였다.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 노출에 의해 유발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방인에 대한 낮은 공감 수준을 매개로 제노포비아를 자극할 수도 있다(이재신·김지은·최문훈, 2011; Bloom, 2016). 반대로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의해 유발된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방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을 매개로 제노포비아를 완화할 수도 있다(Batson & Ahmad, 2009). 이처럼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제노포비아를 증폭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주가설 4>를 설정하였다.

<주가설 3>과 <주가설 4>를 통해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가설들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모형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사회과·다문화 교육계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이론적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회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로서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사회과는 이방인과의 공존, 이방인 유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교육 정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해소하고 이방인들과의 공존을 촉진하는 시민교육·다문화 교육 방향 수립에 대한 통찰력과 정책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방인에 대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가 어떤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이기도 하다. 기존의 제노포비아 관련 연구들은 제노포비아 유형 조사와 제노포비아에 대한 인식조사 등에 집중되어 있어(황은영, 2014; 최영미, 2016) 제노포비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제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제노포비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제노포비아 형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Ellison & Powers, 1994). 이는 단순히 청소년 시절에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향후 그들이 직면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근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밝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사회지배성향'이라는 심리학적 논의와 '미디어 노출'이라는 사회학적 논의를 적용하여 제노포비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노포비아의 심리적·사회적 역동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것은 제노포비아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제노포비아의 작동 과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공감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를 단선적 관계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어떻게" 또는 "왜" 제노포비아를 예측 또는 야기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변인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만약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공감을 통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의 변화과정이 검증된다면, 이는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한 사회과 다문화 교육의 교육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연결하는 매개 변인으로 공감의 영향력을 검증하되,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공감의 한계'에도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는 것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본 연구만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시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서 논의된 공감 관련 연구들은 공감의 긍정성·당위성·실천 가능성의 전제 위에서 주로 연구되었다(추병완, 2012; 이선영, 2013). 그러나 공감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공감이 어떻게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는가에 대해 설명해주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이의 관점을 취하는 공감 그 자체는 중립적인 능력이다. 공감은

친사회적 행위와 같은 건설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도 있고, 비인도적 범죄나 제노포비아와 같은 파괴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De Waal, 2010/2017: 287). 본 연구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가'에 대해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감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은 공감 교육의 이론적·실천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노포비아 해소와 다문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공감 교육'에 보다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인구학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을 특정 지역의 학생들로 한정하고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제노포비아와 같은 차별적 태도를 연구할 때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묵적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ly correctness)'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과 같은 규범적 압력(맥락) 때문에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데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문에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Dunton & Fazio, 1997). 하지만 암묵적 평가는 컴퓨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까닭에 법정대리인의 보호 및 동의가 필요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 과정이 복잡하여 학교 현장을 통하기도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Devine(1989)은 의식적인 통제 하에 일어나는 인종차별적인 행동 등을 예측하는 데에는 암묵적 평가가 효

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명시적 평가로도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은 엄밀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미디어 노출 정도는 객관적인 도구로 정확히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는 본 연구는 언론학계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기를 명시한 노출 빈도'[4]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방인에 대한 영화, 뉴스 보도 등 미디어 내용이 많지 않은 상태 혹은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방인 관련 이슈가 있는 특정 시기에는 많고,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많지 않을 수 있다-에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노출 빈도를 보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허윤철·임영호, 2015; 김예솔란·여민구·이미나, 2018; 이정기·황우념, 2020)를 참고하여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노출 정도'로 측정하였다.

4) 예를 들면 언론학계 등에서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1~2회', '1개월에 1~2회', '2~3개월에 1~2회', '전혀 없다'와 같은 주기를 명시한 노출 빈도를 활용하여 미디어 노출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 미디어 노출, 사회지배성향, 공감이다. 각 용어의 구성개념과 그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노포비아(이방인 혐오)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이방인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표현하는 개념이다(Yakushko, 2009). 제노포비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방인이나 외국인 등 낯선 사람, 낯선 외국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혐오”라고 정의하고 있다(웹스터 어학 사전).[5]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제노포비아를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것을 토대로 타인을 배제·거부하고 때때로 비방하는 표현, 편견, 태도 그리고 행동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상운, 2016: 409에서 재인용). 즉 제노포비아는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이방인 또는 타 지역 출신자에 대해 갖는 비이성적인 두려움 또는 증오,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Boehnke, Hagan, & Hefl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노포비아를 “이방인 등을 거부하거나 차별, 혐오하는 적대적인 태도”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방인에 대한 혐오(이방인 혐오)’로 사용하고자 한다.

5) 웹스터 어학 사전(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 (검색일: 2020.05.24.)

2) 이방인

제노포비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법률상 우리나라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제노포비아 개념 대상은 단순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정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그룹인 결혼이주민, 조선족(중국 동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제노포비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고[6],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정의 내리기에는 어려운 특수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다수는 한국 국적이며, 결혼이주민들도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한다.

제노포비아는 단순히 '외국인'만이 아니라'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내 입국 재외 동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와 이질적인 사회·종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다 국내 입국한 결혼이주민 등을 제노포비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 등을 제노포비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의 제노포비아 현상이 단순히 인종주의적 측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방인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합법·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국제결혼이주민, 이민자, 귀화자 등 포함), 조선족(중국 동포)을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모두 포

6)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존재로 차별받고 있는 중국 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노포비아는 Soldatova(2007)가 분류한 제노포비아 범주 중 사회적 혐오증(social phobia)의 일종인 이주자 혐오증(migrantophobia)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함”하고자 하며, 이들을 지칭할 경우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거나, ‘외국인 등’이라고 기술하고자 한다.

3) 사회지배성향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은 집단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집단에 대한 지배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사회지배성향은 개인이 인종, 국적, 종교 등에서 특정 집단의 지배를 지지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옹호하는 성격의 특성을 나타낸다. Pratto와 그의 동료들(1994: 742)은 사회지배성향을 “집단 간 관계를 평등하게 보느냐 또는 위계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선호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집단 간 관계에 관한 일반적 태도 지향성”, “자신의 내집단이 외집단을 지배하고 외집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집단은 상위에 있고, 다른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좋다”와 같은 진술에 동의하며, 근본적으로 평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평등이 사회의 중심 가치가 아니라고 여긴다. 다시 말해 사회지배성향은 사회 집단 간 평등을 거부하며,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차별적 위계를 얼마나 지지하고 선호하는지를 나타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atto와 동료들(1994)의 사회지배성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이 소속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다고 보며, 외집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4) 미디어 노출

미디어(media)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뜻한다

(유일상, 2002). 이러한 미디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미디어의 유형 또한 다르다. 청소년들의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채널은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뉴 미디어까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Flusser(1996/2001)의 논의[7]를 참고하여, 미디어의 범위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미디어 노출(media exposure)'이란 다양한 미디어의 직접적인 사용(use)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가치와 사회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Slevec & Tiggemann, 2011).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 노출은 개인의 관심사와 흥미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우연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8]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우연적·선택적 노출을 모두 포함하며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미디어 노출'은

---

7) Flusser(1996/2001)는 미디어를 '담론형 미디어(diskursive medien)'와 '대화형 미디어(dialogische medien)'로 구분하고 있다. 담론형 미디어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소통 행위로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등의 매체를 포함한다. 대화형 미디어는 정보를 합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교류 행위인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등을 의미한다.

8) 미디어 노출은 의도적 노출, 우연적 노출, 선택적 노출로 나눌 수 있다. 의도적 노출(intentional exposure)이란 개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특정 자극에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 등을 뒤져서 이방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 의도적으로 해당 자극에 노출되게 된다. 우연적 노출(accidental exposure)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정 정보에 우연히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는 도중에 이방인 등장인물을 보게 되는 것이 우연적 노출에 속한다.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만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범죄 관련 뉴스 소식을 보려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이리저리 바꾸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 가지 유형의 미디어 노출을 현실적으로 엄밀히 구분하여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다수 연구들은 이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이두희, 2003).

“중·고등학생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 등 미디어로부터 이방인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5) 공감

Hoffman(2000/2011)은 공감(empathy)을 “타인의 내적 상태−예를 들면 감정, 지각, 의도 등−에 대한 인지적 자각이면서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정서적 대응”으로 정의하였다. Batson과 Ahmad(2009)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 상태에 반응하여 그것을 상상해보기 위한 광범위한 인지적·정서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황태연(2015: 87−88)은 “공감은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감정을 자기 속에서 ‘재현’하여 남의 감정과 유사하게 재현된 이 감정을 ‘남과 같이 느끼는’ 이심전심의 감정 ‘작용’ 또는 이심전심의 감정전달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는 공감이 이심전심의 감정작용·감정능력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공감자는 타자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관찰자’의 위치를 갖는다는 것이 공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공감은 인지적 측면에서는 타인의 감정, 사고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정서적 측면에서는 타인과 유사한 정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ffman(2000/2011), Batson과 Ahmad(2009), 황태연(2015) 등의 공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타인과 자신이 분리된 개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긍정적·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그와 유사한 감정을 갖는 감정작용이자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 및 설문 문항이 도출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인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이해하기 위해 제노포비아 개념의 유형 및 유발 요인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제노포비아 이슈가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 줄 수 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 형성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 기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절부터 제4절까지는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 공감이 제노포비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의 시사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1.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

1) 제노포비아의 개념 및 유형

(1) 제노포비아의 개념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낯선 것 또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제노(xeno)와 '싫어함·공포·두려움'이라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성된 것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낯선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한 적대감 또는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Yakushko, 2009). 제노포비아 단어 자체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fear of strangers)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의 의미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hatred of strangers)'으로 쓰이고 있다. 즉 제노포비아는 낯설고 생소한 것에 대

해 불쾌해하는 비이성적인 감정 상태로 정체성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적 태도와 행위를 포함한다(Hjerm, 2001; Pain, 2007)

일반적으로 제노포비아는 인종주의(racism)와 혼용 및 중첩 가능한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하고(Wimmer, 1997), '인종주의의 약한 버전(mild version of racism)'(Westin, 2003)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노포비아는 인종주의, 특히 전통적 의미의 인종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인식 및 감정적 판단, 그리고 특정 인종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인 인종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Marger, 1994: 27). 첫째, 인간은 자연발생적으로 상이한 신체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이 같은 신체적 특성은 특정 인종의 문화창조 및 지적 능력과 연결된다. 셋째, 이러한 유전학적 형질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천부적으로 우월 또는 열등하다고 규정하는 검증할 수 없는 유전학적 입장을 지지한다. 이처럼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차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종주의는 백인들의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적 우월성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주로 서구 선진국들에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노포비아는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제노포비아는 기존 인종주의에 사회·경제적 및 종교·문화적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이방인으로 인지되는 개인·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에 집중한 심리학적 개념이다. 특히 제노포비아는 명백한 인종차별(overt racist actions)과 사회 담론에 숨겨진 '보다 미묘한(subtle) 형태의 배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Hjerm, 1998: 335).

또한 제노포비아는 백인 위주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이방인'에 대한 '배제' 현상인 제노포비아는 특정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문제이다(김세균 외, 2006). 제노포비아는 식민지 시대 이후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의 형성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차별 등에서 유래한 증오가 주 동기이다. 여기에 지구촌 시대에 새로운 일자

리를 찾아 이동하는 이주노동자들과 기존 사회구성원 간의 경쟁이 낳은 갈등 등이 겹쳐지면서(허경미, 2014), 계층과 지역을 불문하고 점차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노포비아의 유형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으로 인지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혐오에 집중한 심리적 개념으로 일종의 '공포(두려움)'가 개입되어 있는 현상이다(원숙연, 2019: 75). 제노포비아는 이처럼 심리적인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특징만을 가지고 규정하기 어렵다. 기존 다수자 입장에서 이방인과의 문화·종교·정치 등과 같은 여러 갈등들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제노포비아 현상은 다양한 형태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최영미, 2016). 제노포비아 양상은 이방인에 대해 심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나 적대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혐오를 느끼는 수준, 정체성이 다른 이방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 훼손적 태도와 행위,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강하게 표출되는 갈등, 폭력, 방화, 테러 수준까지의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Bavin, 2007; Taras, 2009; Jones, 2011). 이에 제노포비아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Solatova(2007)는 제노포비아 대상에 따라 인종·민족적 혐오증, 종교적 혐오증, 사회적 혐오증으로 분류하였다. 인종·민족적 혐오증(ethnophobia)은 다른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의미한다. 흑인차별,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중국인 혐오증(Sino-phobia) 등을 들 수 있다. 종교적 혐오증(religious phobia)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혐오를 의미한다. 무슬림을 테러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배척하는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a)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혐오증(social phobia)은 주류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특정

한 문화, 사상, 신체 등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된 광범위한 편견과 배타성을 의미한다.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자 혐오증(migrantophobia)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낯선 존재로 차별받고 있는 중국 동포와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회적 혐오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Jones(2011)는 표상 수준에 따라 배타적, 소유적, 악성적 제노포비아로 분류하였다. 배타적 제노포비아(exclusive xenophobia)는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다수자와 다르기 때문에 다수자들의 지역사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동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내에 이질적인 정체성의 유입은 문화 간 마찰·갈등으로 사회불안 및 사회통합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간주하여 이방인을 공동체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소유적 제노포비아(possessive xenophobia)는 이방인은 근원적으로 다수자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외부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이유가 추가되어 이방인을 직업, 교육, 세금, 의료적 혜택 등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로 인지한다. 악성적 제노포비아(toxic xenophobia)는 이방인은 공동체 외부에 거주해야 하며, 이방인이 다수자의 자유(가치 체계)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악성적 제노포비아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표 Ⅱ-1] Jones(2011)의 제노포비아 유형 분류

구분	배타적 제노포비아	소유적 제노포비아	악성적 제노포비아
공통 전제	이방인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우리 공동체의 외부에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함		
이방인에 대한 인식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존재	직업, 교육, 세금, 의료 혜택 등을 누리려는 존재	공동체적 가치 체계와 자유 등을 파괴하는 존재

(황은영, 2014: 16에서 재구성)

한편 Bavin(2007)은 ① 다른 사람의 특정 소수 종족에 대한 적대감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② 특정 소수 종족의 이주를 제한해야 하는가? ③ 특정 소수 종족을 추방하려는 결정에 찬성/반대하는가? 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다수자의 제노포비아 정도를 관용, 방어, 순수, 혐오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Ⅱ-2] 제노포비아 정도에 따른 Bavin(2007)의 유형 분류

제노포비아 정도 **저** ⟷ **고**

구분	관용형	방어형	순수형	혐오형
이방인에 대한 태도	이방인 이주 찬성	이주 억제	이주 억제	이주 반대
	이방인 추방 반대	추방 반대	추방 찬성	추방 찬성
	이방인 자격·권리 인정	자격·권리 수긍	자격·권리 배제	자격·권리 박탈
Jones와 비교	–	**배타적 제노포비아**	**소유적 제노포비아**	**악성적 제노포비아**

(황은영, 2014: 19에서 재구성)

가장 포용력 있는 유형인 관용형(tolerant)은 이방인의 이주를 찬성하고 기존에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추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방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과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어형(protectors)은 자신의 지역에 이방인들이 밀어닥치듯이 들어오는 것을 제재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이미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추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방인도 여러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의·지지하지는 않는다. 순수형(ethnopurists)은 이방인 이주를 억제

해야 하며, 기존에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퇴출 또는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방인은 내국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혐오형(xenophobes)은 가장 혐오감이 강한 유형으로 이주 자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미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제노포비아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볼 때 제노포비아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나와 다른 이방인에 대한 부적 감정에서부터 혐오를 표출하는 현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제노포비아의 유발 요인

제노포비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발현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Taras, 2009). 각 요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제노포비아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실 속의 제노포비아는 이러한 요인들이 동시에, 그리고 서로 관련되어 작용하여 형성되고 있다.

(1)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은 제노포비아 현상 유발의 근원을 '우리(동질성)'와 '그들(이질성)'을 구분하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 등에서 찾고 있다. '다르다'라고 느끼는 의식이나 정서는 자기보존이나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우리와는 다른 타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식이나 정서를 포함한다(김세균 외, 2006: 17). 제노포비아 현상은 다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9]은 실제 대립하는 현실적 갈등이 없이 단순히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을 짓는 것만으로도 범주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Tajfel, 1982). 일단 어떤 집단의 성원으로 소속되면 세상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범주화하고, 그 과정에서 두 범주 간의 차이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가치판단적 평가로 이어져 자신이 속하는 내집단은 보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외집단에 대해서는 거부에 따른 부정적·비호의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Linville, Fischer, & Yoon, 1996).

Kumar와 Seay(2011)는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10]을 통해 개인이 자신을 범주화할 때 사회 범주화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집단은 우월하고 가치 있는 대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타자로 규정된 외집단은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결국 경계의 획정 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강화한다. 이러한 이분적 도식에서 발생하는 사회심리학적 과정을 통해 우리와 다른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현상이 형성되고 표출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두려움 이론(fear theory)에서는 제노포비아의 원인을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다(Jones, 2011). 주류

---

9)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추구하는 인간은 사회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차별화되거나 독특하게 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정체성이론은 사회 범주화, 긍정적 자기정체성 추구, 사회 비교 및 내집단 독특성 추구가 복합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10) 범주화는 사회적 범주화와 자아범주화로 대별된다(Tajfel, 1982). 전자는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범주화와 자아범주화가 별개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침윤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관점이 될 것이다(원숙연, 2019: 43에서 재인용).

집단 구성원들은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등이 다른 대상과 접촉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낯선 것은 신기로움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도 되기 때문이다. 인종, 종교, 문화, 경제력 등이 이질적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사회, 국가, 안전, 경제, 종교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을 부추길 수 있다. 제노포비아는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는 다수자의 의식 및 행동 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 관점에서는 하나의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방인 등 타자에 대해 거부감 또는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형성된 현상으로 본다.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이방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객관적 위험의 정도를 뜻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에 가깝다. 따라서 내국인이 이방인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제노포비아 확산에 사회적 요인으로서 미디어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Mutz(1998/2000)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집단을 면대면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 미디어를 통해 훨씬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미디어의 영향력이나 효과는 수용자들이 이슈나 대상에 대한 직접 경험이 제한적이거나 가시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현실을 다룰 때 훨씬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미디어가 매개하는 현실이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현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방인에 대한 지각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접촉 등 간접 경험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방인 이슈’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재현(현실 구성) 수단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일차적 경험 대상 자체일 수도 있다. 이처럼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는 내집단 성원들이 이방인 집단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되며, 미디어에서 이방인을 마주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한 미디어의 효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혹은 이방인과 주류집단과의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을 담고 있는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taub & Pearlman, 2009). Bogatz와 Ball(1971)은 미국 공영 텔레비전 프로그램 『세사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에 대한 종단연구에서 다종족적 자극재료와 조화로운 인종 간 상호작용을 담고 있는 개입이 어린이들의 인종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장기간 시청한 아동들은 외집단에 대한 인종적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르완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Paluck(2009)의 연구에서도 특정 부족(투치족과 후투족)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노포비아 정서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aluck(2009)은 “소수민족인 투치족은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라고 묘사한 미디어(라디오 방송)가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외국인 범죄 등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미디어 메시지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 두려움이나 적대감 등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Armstrong, Neuendorf, & Brentar, 1992). 이는 현실에서 제노포비아적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유발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 미디어의 영향을 핵심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적 요인

경기의 부침에 따른 노동시장 상태의 변화와 경제발전의 상태 등은 제노포비아 현상과 관계가 있다. Adam과 Moodley(2015)는 제노포비아가 활성화되는 곳은 경제적인 불행, 즉 실업과 같은 절대적 불행이나 부의 불평등과 같은 상대적 불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불행 이론(misery theory)으로 설명하였다.

노동시장의 위축 및 실업률의 확대, 임금수준 하락 등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사회적으로 다수인 자국민들은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심리적 불안정과 동요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제노포비아를 심화시키게 된다. 경제적 고통을 겪을 때 이방인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믿게 되고, 주택과 위락시설·교육 등에서 이방인을 경쟁상대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주류집단의 경제와 복지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일종의 희생양(scapegoat)으로 지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이방인 중 경제적 성취를 획득하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은 개인이 나타나면 심리적 박탈감은 증대되어 결국 이방인에 대한 혐오증인 제노포비아를 투사하게 된다. 최아영(2010)은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인들의 이방인 대상 제노포비아 범죄가 4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밝혔다. 경제적 문제가 제노포비아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4) 법·제도적 요인

이민국 사회는 이주자들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때 국적 부여 원칙과 통합(정책) 모형은 제노포비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요인에 해당한다. 이민국 사회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따라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차별배제모형은 이주자나 외국인노동자를 3D 업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영역에서만 수용하고 시민권, 정치적 권리(선거권·피선거권), 복지혜택 등과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이 차별배제모형에 속한다. 동화모형은 이민자나 외국인노동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차이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장려하고 인정하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두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임종헌, 2006: 64). 차별배제모형과 동화모형은 내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배타적인 태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이주민들의 저항을 유발하고, 다시 주류사회 구성원들의 제노포비아를 확대시켜 결국은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5)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정치가들에 의하여 제노포비아가 조장된다고 본다. 엘리트 선동이론(elite incitement theory)은 정치 엘리트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이방인에 대한 위협과 자극적인 발언·행동을 할 때 제노포비아가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 엘리트가 제노포비아적 감정을 드러내거나 폭력성을 감싸는 언급을 할 때 혹은 제노포비아 범죄에 정치 엘리트가 연루되어 있을 때 제노포비아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정당 및 정치 엘리트들은 제노포비아를 활성화시키거나 정치 의제화

(agenda setting)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태수, 2006). 예를 들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 출신자를 공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혹은 역으로 외국인 출신자를 보호하는 공약을 지적하여 원주민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원주민의 정치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치적으로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것이다(김상운, 2016: 411).

이상에서 살펴본 제노포비아 현상의 유발·심화 요인 중 경기침체라는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대응 또는 교육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설명하기 위해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요인', 내적 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인'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요인 중에서 '미디어 노출'에,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사회지배성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방인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구성하는데 또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데 미디어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나 영화, 뉴스 보도 등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이방인의 부정적 메시지가 고착되어 제노포비아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Balkaran, 1999). 따라서 '미디어 노출'을 제노포비아의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심리학, 신경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심리적 요인이 환경 못지않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Pinker, 2002). 이러한 논의를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적용해 보면, 심리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제노포비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향후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별도로 가져야 함

을 의미한다. 이에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심리적 요인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은 제노포비아 인식 지향성을 사회정체성의 논의 안에서 다루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외집단 구분이라는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지배이론의 한 측면인 사회지배성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우월하므로 외집단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회지배성향은 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내국인을 상급 계층에, 이방인을 하급 계층으로 나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Saeri, Iyer, & Louis, 2015), 이로 인해 제노포비아적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3) 제노포비아와 다문화 교육

현대 한국 사회는 다문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등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인 차별 및 이러한 상황에 의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의 교육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교육 소외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 문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 교육을 다수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이주자집단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주류사회가 직면한 과제로서 상호적 수용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Berry, 2001). 이에 다수집단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차경수·모경환, 2017). 교육 대상의 확장 차원에서 다수집단 학생들의 이방인에 대한 수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제노포비아적 관점을 제안하고 이를 사회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국다문화교육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형평성, 사회 정의, 편견과 차별 제거, 다문화적 역량과 감수성 배양, 정체성 및 문화적 차이 존중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인종·민족, 성별, 사회계층, 종교, 문화, 언어, 이념 등의 다양성을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타문화를 이해·수용하며 교류하도록 돕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Nieto, 2017). Bennett(1986/2009)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편견과 인종차별을 줄여서 인종 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과정에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핵심 가치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적 다

양성을 수용·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 존엄성 및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이며 넷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Berry와 Kalin(1995) 역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타 인종·타 문화권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 정도가 낮아야 하며, 다양한 인종·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 간에 긍정적 태도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기초는 다수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이라고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제노포비아의 개념 및 속성과 상술한 다문화 교육을 고려하여 양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존중,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 및 차별배제를 지향한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민족, 국적, 언어, 종교 등 주류집단과 구별되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이 인종적·문화적·신체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anks, 2007). 이는 제노포비아 완화 및 해결과 동일한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 교육은 사회의 진실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Banks, 2008: 14) 가르쳐져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이상과 함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등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실의 모순까지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한 '반성적(reflective) 시민 행동'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Banks(2007)는 다문화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이해의 증진'이라고 하였다. 다문화 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의 심화를 목표로 한다. 즉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 행동 등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자기성찰적인 반성이 다문화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문화적 밀폐화(cultural encapsulation) 속에서 사회화된다(Banks, 2008).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가 가정하는 바를 수용하고 세상에 대한 관점, 오개념, 고정관념 등을 내면화하면서 사회화 과정을 겪

게 되는 것이다. 소수집단에 속한 이방인의 경우 학교, 사회 등을 통해 그들 자신의 문화적 가정을 검토하고, 대항하고, 의문을 가지도록 강제되는 경험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사회의 주류집단 학생들은 그들의 가치관, 문화적 가정, 관점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 자신들의 주류 문화가 사회, 학교 문화와 교육과정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교육은 다수자의 제노포비아적 태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류집단 학생들이 소수자인 이방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수준을 제노포비아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일은 소수자(이방인)에 대한 관심인 동시에 '왜곡된 다수자를 극복하기 위한 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노포비아에 관심을 쏟는 일은 다문화 교육이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들(others)'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문화적 갈등이 깊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us)'를 위한 것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social justice), 평등, 상호존중 등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권력 관계에서 배제·억압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 정의임을 전제로 할 때, 소수자인 이방인과 다수자인 내국인의 권력 관계에서 이방인 혐오 문제는 사회 정의 시각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Fraser(2010)는 사회 정의가 '재분배(redistribution)'뿐만 아니라 '인정(recognition)' 모두를 요구함을 주장하면서 정의관으로서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를 강조하였다.[11] 제노포비아 문제와 연계시켜보면 이방

11) Fraser(2010)는 분배(계급 불평등)와 인정(지위 위계)이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 따라서 분석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의 재분배와 문화적 차원의 인정이라는 두 범주를 동등하게 근원적이며 상호 환원이 불가능한 정의의 차원들로 보는 이차원적(two-dimensional) 정의관을 제안하였다. Fraser는 분배와 인정을 '동등한 참여'라는 정의의 기준을 통해 통합하고자 한다. Fraser는 "인간은 모두 동등하게 도덕적 가치(equal moral worth)를 가진다"는 의무론적·비종파적 원리를 선험적 토대로 내세운다. 이 선험적 토대는 만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인에 대한 무시나 혐오, 이방인을 사회적 하위계층 역할로 고정하는 것 등은 이방인에 대한 가치 폄하에 반발하는 인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노포비아로 인해 이방인들이 사회 참여에 제한받는다면 한편으로 이것은 재분배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 이방인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다른 주류집단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존재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노포비아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제노포비아를 문제를 다루고 제노포비아 극복을 지향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의 핵심 요소인 사회 정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onçalvesa e Silva(2004)는 다문화사회의 시민은 자신이 속한 특정 인종, 민족, 사회, 문화 집단의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인 유입 등 최근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민족주의 편협성을 벗어나 사회적 형평과 평등을 추구하는 다문화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을 요구하고 있다(구정화·박윤경·설규주, 2009).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시민적 자질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덕목을 함양하고, 이방인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여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구정화·박선웅, 2011).

이처럼 다문화 민주 국가의 시민들은 정의와 평등과 같은 보편적 이상을 존중하고, 인종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불평등처럼 민주적 이상을 저해하는 현실과 이상 간의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Banks, 2004). 주류집단과 이방인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며, 권력을 공유하고 동등한 지위를 경험하며, 민족적·문화적 경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모두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공동의 시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적 가치, 다문화 민주 국가의 시민성 등을 고려하

수 있는 사회생활의 완벽한 당사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유형들을 해체하고 동등한 참여를 강화하는 문화적 가치 유형들을 통해서 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였을 때 사회과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다원주의적 인식에 기반하여 자신과 다른 이방인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 차별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다문화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학생들이 올바른 다문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면 제노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과교육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공존과 다양성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방해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제노포비아 관련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정하·김영화(2013), 김용신(2014)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 안 학생들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 긴장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이방인으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태도를 갖추도록 바람직한 교육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다문화사회에서 통합과 공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지배성향

제노포비아적인(xenophobic) 양상 또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 중 일부에게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또는 국가 등에 갖는 적대적인 또는 차별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개인차 변인 및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지배성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사회지배성향의 의미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억압은 집단 간 갈등에 적용·예측될 수 있는 사회지배이론(social dominanc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Sidanius와 Pratto(1993)가 제안한 사회지배이론은 사회심리 이론의 하나로서, 다양한 사회 집단 간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지지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지배이론은 모든 사회는 집단 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본다(Brown, 2011/2017). 즉 모든 사회는 소수의 지배적·헤게모니적 집단이 상위에, 다수의 복종집단이 하위에 있는 집단 위계의 체제로 구성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Sidanius & Pratto, 2001). 사회지배이론가들은 사회 속에는 집단 간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는 이념과 이를 약화하려는 이념이 공존하며,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차별의 수준은 구성원이 이러한 이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지배이론 연구자들은 사회 집단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결정짓는 주요 개인차 변인으로 사회지배성향(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을 제안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은 사회지배이론의 개인적 태도 측면으로 집단 위계를 강화/약화하는 사회적 제도나 관행을 정당화하는 가치·태도·신념·귀인 및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황세영·강정석·강혜자, 2017: 183). Pratto와 동료들(1994: 742)은 사회지배성향을 “집단 간 관계를 평등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위계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내집단이 외집단을 지배하고 외집단보다 우월하기를 바라는 정도”로 정의한다.

사회지배성향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 혹은 강자와 약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욕구 경향성이다(Sidanius & Pratto, 2001). 문명이 제거된 자연 상태에서는 약육강식이 당연한 법칙으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인간사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 위에 있고, 다른 집단이 아래에 있는 것이 좋다”와 같은 진술에 동의한다. 그들은 세상을 강자만 생존하고 약자는 생존할 수 없는 무자비한 경쟁의 정글로 인식한다. 권력과 지배,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적 목표를 가진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불평등과 위계질서는 당연하므로 불평등과 위계질서를 제거하여 평등한 사회를 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바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Altemeyer, 2004).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은 사회 집단 간의 위계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이념적 주장이나 사회정책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난다(Pratto et al., 1994).

반대로, 사회지배성향이 약한 사람들은 보다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지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보편적 인간의 권리와 사람들 간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약한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또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협력하려는 수용적이고 이타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Duckitt & Sibley, 2007).

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사회지배성향은 집단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외집단에 대한 지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같은 주류집단보다 지위가 낮은 집단 등에 대한 편견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danius & Pratto, 1993; Pratto, Sidanius, & Levin, 2006). 이방인은 지위가 낮은 집단, 사회적 약자에 속하며 제노포비아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및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은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어주리라 판단된다.

사회지배성향은 인종, 종교 및 국적 등에서 특정 집단의 지배를 지지하고 차별적인 사회적 위계를 선호하는 성향을 측정한다. 사회지배성향은 집단 간 배타성(exclusivity)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외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다수집단 구성원은 스스로 강력한 사회적 위치를 주장하며, 소수집단을 '그들에게 정당하게 소속된' 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Pratto et al., 1994; Zick, Pettigrew, & Wagner, 2008). 이처럼 사회지배성향은 자신의 내집단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자기 고양 가치로서 권력을 중요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소수자 집단을 폄하하고, 외집단 성원들을 차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다(Sidanius & Pratto, 1993).

Pratto와 동료들(199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지배성향과 사회적·정치적 신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다수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편견적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집단 간 계급제도를 찬성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집단 간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집단 간 경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회지배성향

이 강한 다수집단 구성원들은 사회 집단을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구분·나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인종차별,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의 신념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보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월과 지배를 당연시한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책 및 이를 추진하는 소수민족, 성소수자 집단 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신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Heaven, 1999)와 소수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부정적이라는 연구(Pratto et al., 2000)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Bassett(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보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aeri와 동료들(2015)은 사회지배성향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해석은 물론 부정적 정서 반응까지 동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가상의 집단 간 갈등(객관적 사건) 상황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다룬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등장인물을 우월 집단과 열등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열등 집단이 무능하다고 지각하고, 열등 집단에 대해 낮은 정체감을 형성하였다. 심지어 열등 집단에 대해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사회지배성향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넘어 부정적인 정서 반응(예를 들면 분노, 혐오 등)까지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에 비추어보면, 사회지배성향이 수반하는 내집단 편향된 인지적 해석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은 제노포비아 발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특정 집단이 다

른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하위 집단을 향한 강압적 지배와 노골적 억압을 지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주류집단을 우월 집단으로, 이방인을 열등 집단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해 과도하게 우월한 지배감을 보일 수 있다. 동시에 주류집단의 지배를 옹호하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이방인을 혐오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집단 간 우열과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다음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주가설 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미디어 노출

1)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

다양한 정보가 대량으로 신속하게 전송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판단을 제외하고 미디어(media)가 제공하는 인식의 창을 통해서 세계를 탐색하고 있다. 현실 세계는 개인들이 직접 지각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Lippmann(1922/2013: 28)은 미디어가 실제 세계를 단순화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의 상(像)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Kittler(1985) 역시 “미디어는 무엇이 현실인지를 정의한다”고 역설하였다(허찬행·심영섭, 2015: 327에서 재인용). 미디어가 만든 유사 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의 종류와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청소년의 삶을 구성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미디어가 구성한 패러다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태도를 형성하고 사회적 행동을 한다(이미나, 2009: 140−141).

미디어가 매개하는 혹은 만들어내는 패러다임 등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수용자의 인지적 구조에 내재화되며, 이 과정을 통해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Eagly & Wood, 1991). 다수연구들은 미디어 노출이 수용자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백인 대학생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각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난 고정관념과 유사하였으며(Ford, 1997), 라틴아메리카계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뉴스 보도는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vares, 2000). 뉴스에 묘사된 인종차별적 인식은 수용자의 인종주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Gorham, 1999).

중요한 점은 미디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사회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re-present)" 보조적 수단으로서 미디어 수용자에게 세상을 보는 선택적 관점을 달리 제공한다.[12] 이를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 메시지에 적용하여 보면, 수용자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편집을 통해 재구성된 상징화'를 통해 이방인을 인지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인 패러다임에 노출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패러다임에 노출될 수도 있다. 수용자들이 미디어가 구성해 낸 이미지와 메시지에 따라 각종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방인 관련 태도인 제노포비아를 형성하는데 미디어 노출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란 점을 예측할 수 있다.

2)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방인에 대한 재현 등은 우리의 이방인에 대한 인식 및 제노포비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디어가 이방인에 대한 정보나 지식 및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 노출 경험이 제노포비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Allport, 1954/1993). 접촉 가설에 의하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이질감을 해소하고 두려움을 희석하여 제노포비아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이 중 미디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

12) 예를 들면 카타르 민영 방송사인 알자지라는 이라크전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성전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 방송사 CNN에서는 민주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이라크전을 조명한다. 이렇듯 미디어는 세상을 각기 다르게 재현(represent)한 내용물을 소통시키는 경로(mediate)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은 간접접촉이론 중 의사사회적(parasocial) 접촉[13]이다. 의사사회 접촉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대면 접촉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orton과 Wohl(1956)은 영화, 텔레비전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속 인물들과 면대면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삶을 실제 삶과 동등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에 의사사회적 접촉은 집단 간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집단 간 접촉을 담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외집단 편견을 감소시키고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Paluck, 2009). 최정하·김영화(2013)에 따르면 긍정적인 외국인 보도를 시청한 경우에 부정적인 내용을 시청한 경우보다 학생들의 제노포비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와 평가 등에 노출되는 것은 주류집단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제노포비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오히려 제노포비아를 조장할 수도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디어 노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력을 규명한 Gerbner의 배양가설(cultivation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미디어 속 세계가 현실 세계(real-world)와는 다르고[14] 미디어 메시지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왜곡되고 정서적·인지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Gerbner와 동료들(1980)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

13) 20세기에 들어와서 집단 간 접촉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은 사회 집단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적인 집단 간 전략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적인 집단 간 접촉은 확대된(extended) 접촉, 대리적(vicarious) 접촉, 의사사회적(parasocial) 접촉, 상상된(imagined) 접촉을 포함한다(추병완, 2012).

14) Gerbner와 동료들(1986)의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경찰의 수는 미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도시를 훨씬 상회하고, 텔레비전 속 인물들은 실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텔레비전 속 범죄자들은 현실에서보다 훨씬 더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잦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되는 수용자일수록 미디어가 구성하는 상징 세계와 유사하게 사회 현실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규명했다. 이를 위해 텔레비전 중시청자(하루 4시간 이상 시청)와 경시청자(하루 2시간 이하 시청) 집단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경시청자 집단보다 중시청자 집단이 텔레비전이 구성하는 상징 세계와 유사하게 세계를 훨씬 '비열하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잦은 텔레비전 노출로 인해 개인이 인지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비열한 세계관(mean-world view)'이 길러지고 있었다. 배양가설의 맥락에서 Romer, Jamieson과 Aday(2003)는 범죄 보도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일수록 사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배양가설의 하위 가설인 공명 가설(resonance hypothesis)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텔레비전이 공명할 때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더욱 증폭된다고 주장한다(Gerbner et al., 1986). 즉 텔레비전에서 묘사하는 왜곡된 현실 이미지가 사람들의 기존지식이나 직접 경험과 비슷할 경우 메시지의 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Woo와 Dominick(2001)은 사람들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배양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방인 이슈에서 미디어의 부정적 노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이 실제 경험보다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배양가설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미디어에 의해 이방인 관련 부정적 메시지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는 이방인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수연구들이 미디어가 이방인을 다룰 때 상당히 편향된 재현을 보임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내 이방인에 대한 보도는 흔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재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Breen, Devereux와 Haynes(2006)는 아일랜드 신문이 이방인 문제를 다룰 때 이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범죄, 사기, 무질서,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연관 지어 이방인을 사회적 위협으로 타자

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민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캐나다에서 수행된 Mahtani(2008)의 연구에서도 주류 언론들이 비백인집단과 소수인종을 일탈 행동이나 범죄와 관련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up(2010)은 배양가설에 기초하여 텔레비전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화면 속 흑인 용의자를 유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범죄 비율보다 부풀려진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 노출 등이 이방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제노포비아를 부추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도 미디어가 이방인을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내국인의 부정적 감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불법, 비행, 위협, 부담으로 프레임화[15]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들의 존재는 사회의 점진적·안정적 발전에 장애 요소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채영길, 2010).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은 살인자, 불법체류자, 불법 취업자, 밀입국자, 범죄자, 보이스피싱 가해자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주로 재현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타자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높이고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가상준·김재신·임재형, 2014).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경희(2009)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는 국내 거주 이주민을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로 정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민은 빈곤, 불법 결혼중개업의 희생자, 소통 불능의 부정적 존재로 사회문제화되어 표현되고 있었다(이연옥·박병현·장덕현, 2012). 이주노동자는 경제적으로 하층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양준(2012)은 국내 거주

15) 언론의 틀 효과(frame effect)는 대상에 대한 입체적 기술이나 표현 대신 특정 면을 강조한 의미 부여로 고정된 이미지를 대중의 인식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 양식은 이주노동자 등 이방인의 이미지를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신문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신문 보도 사진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미지는 단순노동자(38.8%), 범죄자(15.0%), 환자(15.0%), 시위자(8.1%)로 묘사되어 전반적인 보도 방향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환(201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디어가 묘사하거나 보도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2세들은 범죄자, 피해자, 사회적 약자, 시혜대상자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방인 범죄 등 이방인 관련 부정적 메시지에 대한 높은 미디어 노출 빈도는 미디어 가치의 속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방인에 대해 편향된 재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접 접촉 없이 얻어진 정보는 미디어 정보와 같은 간접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고착될 수 있다. 특히 이방인 관련 범죄 보도는 '범죄'라는 부정적 요소와 '이방인'이라는 낯설고 경계해야 할 대상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감정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방인은 매우 위험한 집단", "이방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상조·박승관(2016)은 '외국인 노동자=우범자'라는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 비율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범죄 등 미디어 세계에 표상된 상징적 현실에 의해 배양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에 최근의 제노포비아는 '온라인' 미디어와 결합하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제노포비아와 같은 혐오감은 본래 전이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 사용으로 그 전파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김현희(2016)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게시글과 댓글 등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혐오, 불안, 적대감, 공포의 심리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외국인 등을 타자화시킴으로써 제노포비아 담론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운(2016)은 1차적으로 이방인에 의해 발생한 강력 범죄가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고, 2차적으로는 확인되지 않

은 내용들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제노포비아가 조장·확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이들에 대한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ate & Mastro, 2016). 이방인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재현은 상황에 따라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신념을 생산하여 이방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반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미디어 노출 중 어느 것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제한용량모델(limited capacity model)을 통해 유추해보고자 한다(Cacioppo & Gardner, 1999; Lang, 2006). 이 모델은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입력-저장-인출(기억)이라는 정보 처리 과정이 뇌에서 진행되는 동안 제한된 자원이 자동적으로 분배된다. 이 때 어떤 정보들은 입력되지만 저장되지 않는다. 어떤 정보들은 빠르게 떠오르지만, 어떤 기억들은 느리게 인출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모델은 이를 긍정 개시(positive offset)와 부적 편향(negative bias)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긍정 개시는 이방인과 같은 새로운 대상이나 자극, 맥락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긍정 개시는 그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활성화 정도가 낮고, 반응의 속도도 느리다. 반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강한 부적 편향을 일으키고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때는 활성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 기억이 빠르게 인출되면서 강한 부정성을 갖고 이로부터 회피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요약하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보다 눈에 띄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 효과

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Taylor(1991)는 부정적 사건과 긍정적 사건이 만들어내는 비대칭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반응 전반에서 긍정적 사건에 비하여 빠르고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를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협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하였다.

선행연구들로부터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긍정 개시로서 약한 접근(appetitive) 동기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부적 편향으로서 강한 회피(aversive)의 동기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제노포비아는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보다 부정적 미디어 노출에서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 및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주가설 2】 미디어 노출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1 :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하위가설 2-2 :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는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4. 공감

1) 공감의 개념과 효과

공감(empathy)[16]은 타인의 감정 상태나 맥락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Cohen & Strayer, 1996). 공감 개념은 정서적, 인본주의적, 사회심리학적 및 정신분석적 관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정의하였던 공감의 개념들을 정리한 일부를 살펴보면 [표 Ⅱ-3]과 같다.

공감은 인지적으로는 상대방이 느끼는 바에 대하여 '알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거나 이해'하는 것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공감은 어떤 상황에 처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으로 감정의 공유를 포함한다(박성희, 2004: 47). 공감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지 주도적인 면을 강조(Piaget, 1932; Mead, 1934; Deutsch & Madle, 1975)하기

16) 공감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empathy'라는 용어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mpathy'는 Vischer(1873)가 미학에서 사용한 독일어 'Einfühlung(감정이입, in-feeling)'에서 유래되었다. 'Einfühlung'은 관찰자가 흠모하거나 관조하는 물체에 자신의 감성을 투사하는 방법을 뜻했다. 이후 Lipps(1910)가 'Einfühlung'에 대응하는 그리스어로 'empatheia'를 거론한 이후 영미권에서 여러 논쟁을 거치면서 'empathy'는 주로 '공감'을 뜻하는 학적 용어로 정착하였다. 특히 공감의 '감(pathy)'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관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는 적극적·능동적인 참여의 의미를 갖는다(Rifkin, 2009/2010: 19-22에서 재인용).

공감은 동정(sympathy)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괴로워하는 타인을 보고 그가 느끼는 괴로움을 함께 느낀다면 'empathy'이지만, 괴로워하는 그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sympathy'이다. 이처럼 동정은 나의 감정이 완전히 상대의 감정에 이입되고 압도당해 똑같이 느끼는 것으로, 나 스스로는 망각하게 된다는 수동적·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해 공감은 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도 하고, 정서 주도적인 면을 강조(Eisenberg & Strayer, 1987; Miller & Eisenberg, 1988)하기도 한다.[17]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을 단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라는 두 가지 분명히 구별되는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Hoffman, 2000/2011). 즉 공감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고 존중하며 그에 대하여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Ⅱ-3] 공감의 정의

학자	정의
Batson & Ahmad(2009)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상황에 투사하는 것
De Waal(2010)	기본적인 감정적 전염, 위로의 노력, 걱정과 우려, 목표가 있는 돕는 행동, 타인의 입장을 취하는 발전된 인지 모델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능력
Hoffman(2000)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타인의 상황 및 정서적 상태에 더 적절한 정서적 반응
Hogan(1969)	타인의 상황·정신 상태에 대한 지적 또는 상상적 이해
Lanzoni(2018)	자신을 타자의 상황에 얽어매는 것
Lazarus(1991)	타인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타인의 어려움을 줄여주려는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정서
Mead(1934)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상대의 관점에서 그 태도를 취하는 것
Mehrabian & Epstein(1972)	지각된 다른 사람의 정서적 경험에 대하여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
Stotland(1969)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17) 학자들에 따라 의사소통적 요소(박성희, 2004), 생리적 요소(자율신경체계 활동, 호르몬, 신경기질 등)(Zahn-Waxler & Hastings, 1999), 사회적 요소(Segal, 2007) 등의 요소를 추가하기도 한다.

공감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공감의 중요성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인간의 생존 가치 고양에 기여한다. 공감은 대리적으로 경험된 감정의 측면에서, 위험이나 기타 신호적 단서들의 탐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태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인간의 생존과 발달에 근본적인 기초요소에 해당한다(Zahn-Waxler & Hastings, 1999).

둘째, 공감은 사회적 참조, 상호주관성, 공동 관심 등의 능력과 관련되어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 상호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촉진하여 대인관계를 견고하게 해준다. 우리의 뇌 속에는 공감 발생의 생물학적 원천인 거울 신경(mirror neurons)[18]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특정 행동을 하면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한다. 이처럼 공감은 무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원칙으로 작용하며 우리 인간이 개인 상호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사람들은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 정서에 관심을 보이고 이해하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공감은 개인의 태도를 변환하거나 행동을 야기하는 기제로도 작용한다. 특히 공감은 이타적인 동기를 촉발하는 주요 정서 기제로서 친사회적 행위를 매개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과 관련되며 그럼으로써 이타적 행동을 동기화시킨다.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겪은 일과 감정들을 그 사람처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이득과는 무관하게-심지어 우리가 얻는 것이 없거나, 비용이 드는 일이어도- 그 사람을 순수하게 이타적인 동기에서 돕게 된다

18) 거울 신경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났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소병일, 2014: 200). 거울 신경, 뇌의 일부분인 안외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ices)의 작용 등 공감의 발현에 관해서 생물학적 근거에 기대고 있는 사회과학적 주장들도 다수 있다.

(Batson et al., 1981).[19] 공감을 통해 인간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의 발현인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공감은 배려와 정의 원리의 토대를 제공해준다. 공감적 정서와 배려 원리는 타인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하면 행동을 수반하는 공감적 도덕 추론을 하게 된다(Eisenberg & Strayer, 1987: Hoffman, 2000/2011). 정의 원리 또한 그 연계 강도가 배려 원리만큼 직접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공감과 연결된다. 공감은 정의를 이해하는 자료이자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동기로서 공헌한다(Hunter, 2000).

이상에서 언급한 공감의 효과를 이방인에 대한 태도와 연관 지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감은 이방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둘째, 이방인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셋째, 이방인과의 갈등을 감소시킨다. 넷째,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이방인과 관련된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제노포비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문화 교육의 주요 학자인 Banks(2008)는 다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공감을 꼽기도 했다. Gay와 Howard(2000) 역시 타인의 관점에 대한 상상적 참여와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 시민성의 중요 하위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사회과교육협회(NCSS)에서는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해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Schneider et al., 1994). 우리나라의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2).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따른

19) 이타적인 동기는 본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고려와도 관련이 있다. 부정적 상태 감소 가설(negative state relief hypothesis)에 의하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 공감적 고통을 느끼게 되며,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경감된다(Schaller & Cialdini, 1988: 164.)

대응으로 공감 능력을 강조하려는 시도(이선영, 2013)와 공감력에 바탕을 둔 문제해결을 시민적 가치로 다루려는 연구(정용교, 2017)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정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능력의 하나인 공감 능력은 친사회적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다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구성원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감 능력은 다문화 환경에서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제노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Batson & Ahmad, 2009). 이방인의 등장과 그에 따른 이질적 문화와의 만남은 공감 능력을 갖춘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 공감의 한계 : 공감과 제노포비아

공감의 긍정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감을 제노포비아, 불의 등에 맞서는 만병통치약으로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공감이 어떤 기제를 통해 작동하며, 또 어떻게 억눌리고 소멸되기도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공감의 한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선 공감의 발생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발생 조건과 관련한 공감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공감이 구현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 정동(affectivity), 유사성(interpersonal similarity),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 귀속(ascription) 조건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정동 조건은 공감을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사성 조건은 공감을 일으킨 사람과 공감을 느끼는 사람 상호 간에는 친밀도와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감은 관찰·상상에 의한 대리적 경험이다. 넷째, 공감을 할 경우 그것이 은연중 전염되어 가진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서 상태의 원천임을 당사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귀속 조건이 있다(황희숙, 2017: 168-169).

공감의 한계와 관련해서, 또 제노포비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유사성 조건'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공감하지는 않는다. 공감에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을 걸러주는 필터와 꺼버리는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다. 공감의 이러한 편파적 특성을 De Waal(2010/2017: 290)은 '평가' 메커니즘이라고 불렀다. Bloom(2016)은 특정한 한 곳에 빛을 비추어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오히려 어두워지는 '스포트라이트'에 공감을 비유한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대상은 주목받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은 부당하게 무시당할 수 있다. Hein과 동료들(2010)은 유럽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지금 보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ingroup)' 사람인지 '그들(outgroup)' 사람인지에 따라 공감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Xu와 동료들(2009)은 뇌 영상(brain imaging)을 이용하여 백인(Caucasian)이 다른 백인의 고통에는 더 공감하면서, 중국인 등 다른 인종·민족에게는 덜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감의 스포트라이트는 외집단을 배척하고 내집단에만 집중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는 공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개체와의 동일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즉 '친근함'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Preston & De Waal, 2002). 공감의 한계는 바로 이 지점 '유사성 편견(similarity bias)'에서 발생한다. 공감은 자신과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친근한 '관계성'에 의해 좌우되며, 내집단편향을 지닌 편협한(biased)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Hoffman, 2000/2011: 264-289). 이런 이유에서 Scarry(1996)는 타인을 해치는 인간의 능력이 매우 큰 이유가 공감 때문이며, 이는 '타인 상상하기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imagining other people)'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둘째,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심한 보복을 주장하게 하는 등 공감은 폭력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소병일, 2014). 어떤 집단을 공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는 그 집단이 다른 개인들에게 행한 잔인한 일이 소문의 형태로 퍼지면서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남부의 흑인들이 백인 여성을 강간한다는 이야기가 돌거나, 유대인 소아성애자들이 독일 아이들을 추행한다는 말이 퍼졌을 때 정치 선동가에 의해 공감이 잘못 이용되어 끔찍한 흑인 학살이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가져왔다(Bloom, 2016). Haley와 Sidanius(2006)는 공감이 고문, 사형제도 그리고 외집단에 대한 정복 전쟁을 지지하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Buffone과 Poulin(2014)은 공감이 어떻게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피험자들이 피해자에게 애착이 강할수록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크게 발현되어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게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과 폭력의 연관성이 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Stagnaro와 Bloom(2016)은 중동에서 저널리스트가 납치된 사건 등에 관한 이야기를 피험자들에게 들려주고, 그 고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부터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는 것, 무력 침략까지 일련의 선택지를 제시—이 좋을지 묻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더 가혹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oom, 2016: 195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감이 오히려 증오나 적대감과 연결되어 극단적인 제노포비아나 폭력 충동, 심할 경우 전쟁 등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셋째, 잘못된 편견에 공감할 경우 오히려 공감은 악행을 유발할 수 있다. Bloom(2016)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흑인을 말살하려는 인종 차별주의자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그리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째, 공감은 원칙적으로 타인이 체험한 '가치에 대해 무분별'하다(Scheler, 1923/2006).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 A가 내국인에 의한 혐오적 표현에 의해 상처받음을 내국인 B가 기뻐할 때, 우리가 B의 기뻐함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태도는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B와 함께 기뻐함도 '공감'이다. 스톡홀름 증후군[20]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공감은 이렇듯 불완전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공감이 늘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감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도 악하다고도 볼 수 없다.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선한 정서가 되기도, 악한 정서가 되기도 한다. 잘 발현된 바람직한 정서로서의 공감은 시민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감이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현되거나 혹은 발현되지 않을 경우 제노포비아와 같은 반사회적 태도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공감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모호한 희망은 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과 다문화 교육은 가치 무분별한 공감의 방향이 보편적 도덕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감의 긍정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에도 주목하여 다문화 시민 교육에서 공감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이라는 변인이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0) 피해자(인질)가 가해자(인질범)에게 심리적으로 공감 또는 동화하여 그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하는 범죄심리학 용어이다.

3) 사회지배성향,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

(1) 사회지배성향과 공감

사회지배성향과 공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지배성향은 공감 또는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의 부족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관용 등과 부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ratto et al., 1994; Sidanius et al., 2013; Ho et al., 2012). Duckitt과 Sibley(2010)는 공감, 이타심, 연민 등과 관련된 성격 특성[21]과 사회지배성향이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성격 변인 중 공감 등을 총괄하는 우호성이 사회지배성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지배성향이 이방인 등 인지된 위험 집단에 대한 편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rown(2011/2017)의 연구에서도 공감, 이타심 등과 관련된 우호성의 측면은 사회지배성향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과 관련된 우호성은 사회지배성향과 도움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msen, Green과 Sidanius(2008)는 공감에 대한 사회지배성향의 효과가 하위 집단에 대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것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지배성향과 공감의 관련성은

21) 성격 심리학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성격 측정 방식은 이른바 '5대 요소 모형(Big-five Personality)'으로 불린다. 성격 5 요인은 우호성(agreeableness), 외향성(extra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neuroticism),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을 말한다. 이 중 우호성은 공감, 이타심, 다툼과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 공동체를 중시하는 성향 등을 총괄하는 성격을 지칭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호성이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정치 이념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Gerber et al., 2010).

신경심리분야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Chiao와 동료들(2009)은 사회지배성향이 타인의 감정 및 복지와 연관되어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의 부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회지배성향과 편견적 태도 사이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 연구는 Bäckström과 Björklund(2007), McFarland(2010)의 연구로 그들은 사회지배성향과 편견 사이에서 공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부적 상관관계를 통해 편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지배성향과 인종차별 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Nicol과 Rounding(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cFarland(2010)와 달리 Nicol과 Rounding(2013)은 편견을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로 구분하여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지배성향과 성차별의 관계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지배성향과 인종차별의 관계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감이 편견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방인과 같은 외집단과 관련된 편견이나 차별을 예측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감 능력'으로는 공감의 매개효과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이방인 집단에게도 공감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공감의 한계 및 발생 조건 중 하나인 '유사성 조건'과 연결된다. 다수연구들은 인종·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등 상대방을 자신과 비슷하다고 인식할수록 그에게 더 크게 공감함을 보고하고 있다(Krebs, 1975; Liviatan, Trope, & Liberman, 2008). Lanzetta와 Englis(1989)는 사람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더 잘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개인들은 이방인들보다는 자기와 비교적 가까운 내집단 사람이나 자신과 항상 접촉하여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공감하기 쉽다. Hoffman(2000/2011)은 공감이 가진 이러한 한계를 "유사성의 편향성(similarity bias)", "친밀함의 편향성(familiarity bias)", "현존함의 편향성(here-and-now bias)"이라고 하였다.

공감과 도움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여러 연구 역시 '대상'에 따라 공감의 영향이 가변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을 때'는 공감 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rtz & Grummon, 1972; 심성옥 1999). 또 도움 행동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공감과 이타행동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도 하였다(Batson et al., 1991).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그 고통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공감 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도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hn, 1990). 이상의 연구들은 공감이 '자신과 유사하지 않은 대상',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 또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상' 등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방인은 인종·민족 등의 측면에서 내국인과 유사성을 공유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크다. 이방인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양계민, 2010; 가상준·김재신·임재형, 2014), 일자리나 복지 등의 측면에서 내국인들에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재정적 부

담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다(원숙연, 2019). 즉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일어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똑같은 공감 능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능력을 어느 범위, 어느 대상까지 활용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22] 공감 능력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촉발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 이는 공감에 대한 개념적 불명확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Duan & Hill, 1996). 따라서 공감이 다루고자 하는 공감의 범위 즉 '대상'을 분명하게 세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따라 공감의 정도 및 친사회적 행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감정을 함께 하는 것으로, 갈등 상황에 처할 경우 이방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외집단과의 분리, 이방인(외집단)보다 더 높은 지위·불평등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Zick, Pettigrew, & Wagner, 2008).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이 낮고 감정이입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낮은 공감 수준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3】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2)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공감의 한계에 대해서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경우가 그것이다.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경우에도 사람들을 매혹하고 신뢰를 얻고 싶을 때는 공감 능력을 키우고,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공감 능력을 줄인다고 한다. 즉 공감 능력은 마치 라디오 음량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특정 상황', '특정 대상'에서는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Bloom, 2016: 102).

4) 미디어 노출,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

청소년들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미디어로 하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방인과 관련해서 이방인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이방인 혐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23] 사회인지이론은 개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운다고 가정한다. 사회인지이론은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독특한 인지적 특성으로 상징화(symbolizing), 자기조절(self-regulatory), 자기 숙고(self-reflective), 그리고 대리 능력(vicarious capacity)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인 대리 능력은 미디어 노출의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긍정적 혹은 부정적)을 강조한다. 대리 능력의 긍정적 영향의 사례로는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한 이방인을 돕는 행위를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함(노출됨)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편견 감소 및 친사회적 행위 증가 등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대리 능력의 부정적 측면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지 않았으면) 노출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범죄, 이방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 및 혐오 등을 목격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상황,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을 봄으로써 태도와 행위를 익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Bandura, 2001). 이러한 이유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방인 관련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은 청소

23) 사회학습이론은 인지적·행위적·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행위를 설명한다.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은 좀 더 포괄적인 사회학습이론의 파생물이다. 사회인지이론은 특정한 행위를 야기하는 인간의 인지를 분석하고, 어떤 사람이 학습을 할 때 작동되는 정신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사회인지이론은 배양효과 등 많은 미디어 효과 이론들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Thompson & Bryant, 2002/2015).

년들이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데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미디어 노출과 공감 간의 관련성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Bagozzi와 Moore(1994)는 도움 행동을 유도하는 공익 광고에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노출되면, 이 감정이 미디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해당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공감이 활성화됨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미디어 메시지의 감정적 정서가 공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용자의 태도나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Raney(2006)는 수용자가 미디어 속 인물의 속성(property)과 행동(action)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 공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밝혔다. Duan(2000)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공감이 발생하게 되면 공감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llmann(1991)은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수용자가 공감을 경험하는 과정을 감정배치 이론(affective disposition theory)을 통해 설명하였다. 감정배치 이론에 따르면 수용자는 먼저 미디어 속 등장인물을 관찰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며,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수용자들은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 미디어 속 인물의 행동을 판단한다. 만약 그 판단 결과가 긍정적이면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배치되어 호감을 느끼게 되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게 된다. 반면 판단 결과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배치되어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게 된다. Zillmann(1991)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의 결과) 공감 혹은 (부정적인 판단의 결과) 역공감(counter-empathy)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미디어 노출이 집단 간 편견, 인종 편견 등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영향의 근간이 되는 과정에서 공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Batson과 동료들(1997), Shechter와 Salomon(2005)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들은 미디어 노출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실제 혹은 허구의 인물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편견 감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디어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에 등장하는 이방인 등 외집단 구성원과의 대리접촉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Pettigrew(1998)는 미디어 수용자들이 외집단 구성원과의 대리접촉으로 미디어 프로그램 및 메시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미디어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이 등장인물이 속한 '실제 집단'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이방인 이슈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미디어 속에 재현된 이방인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감이 일어날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내용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정도와 양상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제노포비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주가설 4】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4개교 남녀공학 중·고등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강남 지역(중학교 1개교)과 강북 지역(고등학교 1개교)에서 각 1개교씩 총 2개교, 경기도 지역에서 2개교(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을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다.

첫째, 서울·경기도를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수도권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은 설문 조사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경기도 32.7%, 서울 21.7%). 서울·경기도에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54.4%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거주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인종·민족·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행정안전부, 2019). 따라서 이 지역의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경험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같은 인구학적·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설문 조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수집단 구성원들로 '중·고등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는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 양상 및 원인을 규명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함이다.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은 물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은 이방인과의 다양한 접촉 경험 등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시기에 형성된 이방인에 대한 수용은 청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Ellison & Powers, 1994). 중·고등학생들은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자 향후 더 복잡한 다문화사회를 겪게 될 세대라는 점(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2016)에서 이들의 제노포비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이방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혐오감과 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다문화사회 시민의 입문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셋째,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과 다문화 교육의 교육적 개입 방안을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회과'라는 교과 범위 내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교육 대상 및 연구 대상은 '제도 공간 내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사회·문화」 과목 등을 선택한 소수의 학생만이 사회과 교육 및 다문화 교육을 교과학습으로 다루게 된다. 반면 고등학교 1학년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으로 「통합사회」 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은 표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내용은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학습 요소와도 연계된다. [표Ⅲ-1]에서 볼 수 있듯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 「사회」(공통 교육과정)의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단원에서는 다문화적 변화 등 최근 한국사회의 변동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선택 중심 교육과정-공통 과목)'문화와 다양성' 단원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 2018).

[표 Ⅲ-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제노포비아 관련 대단원 및 성취 기준[24)]

영역	대단원	성취 기준
중학교 [일반사회]	(2) 문화의 이해	[9사(일사)02-02]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를 비교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다.
	(12)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9사(일사)12-02] 한국 사회변동의 최근 경향(저출산·고령화 현상, 다문화적 변화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구한다.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4) 인권 보장과 헌법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장애인, 이주 외국인 등),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사회계층의 양극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7) 문화와 다양성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10통사07-04]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출처: 교육부(2018)

24)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부분을 밑줄 처리하였다.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이방인 혐오 등으로 인해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등은 제노포비아와 연결되는 학습 내용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수(sample size)는 분석을 위한 최소인원, 사회과학 연구의 적정 표본 수, 설문 조사 중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최대 422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25)]

설문지의 초안은 사회과교육 전문가, 사회과 교사 및 통계학자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받고, 이 과정에서 타당도가 낮은 일부 문항은 수정되었다. 연구 절차와 연구에 활용되는 문서(설문지, 동의서 등)는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SNU 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IRB

---

25) 연구 대상 수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G＊power 3.1.9.4 프로그램(Faul et al., 2009)을 이용하여 최소 표본 크기를 확인하였다. 유의수준 α=.05(양측 검정), 검정력 1−β(power)=.95, 효과 크기(effect size)=.10을 투입 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292명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불성실 응답자 등 탈락률 10%를 예상하면 322명 정도가 최소 필요 표본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류근관(2013)도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이어야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최대 목표 인원수의 설정을 위해서는 Krejcie와 Morgan(1970)의 교육 및 심리 분야에서의 적정 표본 산출 기준을 참고하였다. Krejcie와 Morgan(1970)에 의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크기는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95%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집단은 서울, 경기지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모집단의 크기는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kess.kedi.re.kr) 기준으로 769,866명이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5.0%포인트로 설정하여 표본의 크기를 구하였을 때(http://www.nownsurvey.com/calculator/) 적정 표본 수는 384명으로 산출되었다. Krejcie와 Morgan(1970) 역시 집단의 크기가 75,000명 이상 1,000,000명 미만일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는 382명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정 표본 수는 382명~384명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불완전한 설문지 등을 예상(탈락률 10% 정도)하여 최대 목표 인원수를 422명으로 설정하였다.

No. 1910/003-006). 설문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었으며, 연구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도중이라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설문 자료는 폐기하였다.

설문은 학교의 사전 허가를 얻은 뒤, 연구 목적과 실시 방법을 안내받은 교사에 의해 학급별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교 및 학급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9년 11월~1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에는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제 수거한 설문지는 420부였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질문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응답한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선정 변인과 측정 도구

1) 종속 변인과 측정 도구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Ⅰ부(문항 Ⅰ－1～16)를 구성하였다. 제노포비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Bavin(2007)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김용신(2014), 황은영(2014)이 구체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 문항은 ‘사례 예시 응답형’으로 내국인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편견의 태도를 보이거나 서로 갈등을 벌이는 스토리를 사실적 관계가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례로 제시한다. 이주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정치적 측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실업(경제적 측면), 중국 동포의 범죄(사회적 측면), 이슬람 여성의 의상(문화적 측면) 등으로 이방인들을 설명·소개하고 이를 사례로 하여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정도를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방인인 외국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의 32.0%를 차지), 국제결혼 이주민(10.1%), 외국 국적 동포(17.9%), 외국인 주민 자녀(11.0%) 등을 포함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우리나라 내 무슬림 인구의 증가 추세(2018년 통계청 발표 기준 26만 명 정도) 속에서 이슬람 혐오증(Islamophobia)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박종수, 2017)을 이슬람 전통의상(차도르) 착용 사례로 반영하여 측정하는 등 설문 문항 구성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스토리를 포함한 사례형 설문 문항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방인에 대한 선행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이에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총 20문항 중에서‘이방인 혐오 감정에 대한 도덕적 판단

(예: 외국인노동자를 싫어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인가요? 등)'을 요구하는 4개의 문항은 도덕적 판단과 관련 있어 보이는 문항으로,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양상을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각 사례 제시 후 ① 국적·권리·민족·타문화 인정(예 : 이주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외국인노동자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등), ②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 찬성(예: 이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된 것에 찬성하나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 일하는 것에 찬성하나요? 등), ③ 박탈·추방(예: 외국인노동자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차도르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나요? 등), ④ 포용(예: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의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4가지 사례에 4문항씩(총 16문항)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르트(Likert)식 5점 척도(1=매우 그렇다, 5=매우 아니다)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단 4개 영역 중 '추방(박탈)'으로 제시된 문항(3, 7, 11, 15번 문항)은 역코딩(recoding)하여 분석하였다.

<주 가설 1>, <주 가설 2>, <주 가설 3>, <주 가설 4>에서는 각 문항의 합산점수를 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값을 계산하였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방인에 대해 혐오적인 인식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여러 방법 중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 방식(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을 토대로 측정하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 값은 .6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성태제, 2014).[26] [표Ⅲ-2]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는 .837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제노포비아 측정 문항의 구성

이방인에 대한 태도 하위 영역	문항 내용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정치적 측면 <사례1: 이주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국적 인정, 정치활동 찬성, 국회의원직 박탈*, 정치적 포용	I 1~4 (3*)	.897
경제적 측면 <사례2: 외국인 노동자>	권리 인정, 경제활동 찬성, 외국인 노동자 추방*, 경제적 포용	I 5~8 (7*)	.880
사회적 측면 <사례3: 외국 국적 동포의 범죄>	민족 인정, 사회활동 찬성, 외국 국적 동포 추방*, 사회적 포용	I 9~12 (11*)	.837
문화적 측면 <사례4: 차도르 착용>	문화 인정, 이슬람 문화 유입 찬성, 이슬람 문화 추방*, 문화 다양성 포용	I 13~16 (15*)	.895
제노포비아			.920

※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설문지> 참조. *문항은 역산 문항임.

26) 일반적으로 Cronbach' alpha 계수 값이 .8~.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7이면 허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며, .6 이하이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2) 독립변인과 측정 도구

(1) 사회지배성향

<주 가설 1>과 관련해서는 '사회지배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Ⅳ부(문항 Ⅳ-1~8)를 구성하였다.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을 측정하기 위해 Ho와 동료들(Ho et al., 2015)이 타당화한 단축형 척도($SDO_{7-short}$)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은 유의한 상호상관을 가진 2개의 하위요인, 지배 요인(SDO-Dominance: 이하 SDO-D)과 반평등주의 요인(anti-egalitarianism, 이하 SDO-E)으로 나누어진다(Hindriks, Verkuyten, & Coenders, 2014). SDO-D 요인은 차별적인 사회적 위계를 선호(우월집단의 지배를 옹호)하며 동시에 하위 집단을 향한 강압적 지배와 노골적 억압을 지지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 SDO-E 요인은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관계에서 평등을 반대하며, 사회 집단 간의 위계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사회정책이나 이념적 주장을 부정·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한다(Ho et al., 2012; Jost & Thompson, 2000).

Ho와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에 따른 민감도를 세밀히 구분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 크지 않고 보다 분명한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리커르트식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는 SDO-D 요인과 관련이 있고, 5번 문항부터 8번 문항까지는 SDO-E 요인과 관련이 있다. 이 때 3, 4, 7, 8번 문항은 역채점한 후 5점 환산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SDO-D 예시 문항은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은 상위에 있고 다른 집단

은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등이다. SDO-E의 예시 문항은 '집단 간 평등이 우리 사회의 주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집단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당하다'등이며,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배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Ⅲ-3] 사회지배성향 측정 문항의 구성

사회지배성향의 하위요인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지배요인(SDO-D)	Ⅳ-1, 2, 3*, 4*	.809
반평등주의 요인(SDO-E)	Ⅳ-5, 6, 7*, 8*	.849
사회지배성향		.899

※ *문항은 역산 문항임.

(2) 미디어 노출

<주 가설 2>와 관련해서는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Ⅲ부(문항 Ⅲ-1~4)를 구성하였다. 미디어의 범위는 Flusser(1996/2001)의 논의를 참고하여'TV 뉴스, TV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 신문, TV 드라마, 잡지 기사, 영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로 제시하였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우선 '내용'을 기준으로'긍정적 내용에 대한 노출(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내용에 대한 노출(부정적 미디어 노출)'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내용의 사례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방인의 문화적·사회적 기여, 외국인 노동자의 봉사활동, 이방인의 화목한 가정생활 등을 제시하였으며, 부정적 내용의 사례로는 이방인에 의한 범죄, 불법 파업, 문화 충돌 등을 제시하였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황우념·이정기(2017)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방인 관련 노출 정도'와 '이방인 관련 미디어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에 의한 노출 정도'로 규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단순 노출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관심을 기울여 미디어 내용에 노출되도록 하는 현상(관심에 의한 노출)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상화·나은영, 2002). 이에 전자는 우충완·우형진(2014)을 참고하고, 후자는 허윤철·임영호(2014)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평소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자주 이방인 관련 긍정적/부정적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 "평소 미디어에서 이방인 관련 긍정적/부정적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편입니까?"를 5점 리커르트(1=거의 없다, 5=매우 자주 있다 /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표 Ⅲ-4]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측정 문항의 구성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긍정적 미디어 노출	Ⅲ-1, 2	.713
부정적 미디어 노출	Ⅲ-3, 4	.813

3) 매개 변인과 측정 도구

<주 가설 3>, <주 가설 4>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Ⅱ부(문항 Ⅱ－1～14)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 능력을 복합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Jolliffe & Farrington, 2006).

공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이하 IRI)'척도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Davis(1980)는 인지적 공감(관점 취하기, 상상하기)과 정서적 공감(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측면을 반영하여 네 개의 하위 척도를 개발하였다.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 요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이나 태도에서 이해해 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측정한다. '상상하기(fantasy)' 요인은 영화·소설·희극 등 가상 상황에서 허구적인 인물의 느낌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전위시켜 보는 상상력을 측정한다.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요인은 타인지향적인 동정의 느낌과 불행한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경향을 측정하며,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요인은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받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정도를 측정한다.

Davis(1980)가 다차원적 관점(multidimension empathy model)에서 4개의 공감 하위 척도를 개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일부 하위요인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지적 요소의 하위 척도인 '상상하기'요인이 과연 진정한 공감을 측정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Baron-Cohen & Wheelwright, 2004)과 Davis(1983)가 실시한 IRI 타당화 연구에서 이전에 인지적 공감으로 분류하였던 '상상하기'가 인지적인 특성들보다 정의적 특성들과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정의적 요소의 하위 척도 가운데 '개인적 고통' 요인이 과연 공감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Lawrence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IRI의 하위요인 중 공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 요인 문항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감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자신이 외집단 구성원이라 상상해보는 처치를 하는 '관점 취하기'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Galinsky & Moskowitz, 2000), 타인지향적인 느낌을 갖는 '공감적 관심'은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태도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공감의 하위요인을 인지적 차원에서는 '관점 취하기' 7문항, 정서적 차원에서는 '공감적 관심' 7문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르트식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방향성이 다른 문항(2, 5, 9, 12, 13번 문항)은 역채점한 후 5점 환산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높게 유발되었음을 뜻한다.

[표 Ⅲ-5] 이방인에 대한 공감 측정 문항의 구성

구분	설문지 문항 번호	Cronbach's α
인지적 공감 (관점 취하기)	Ⅱ-1, 2*, 3, 4, 5*, 6, 7	.833
정서적 공감 (공감적 관심)	Ⅱ-8, 9*, 10, 11, 12*, 13*, 14	.872
공감		.911

※ *문항은 역산 문항임.

4) 통제 변인과 측정 도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현실에서의 이방인 직접 접촉 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인(학년,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지 Ⅴ부(문항 Ⅴ－1～7)를 구성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선행 경험에 해당하는 '현실에서의 이방인 접촉 경험'은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port(1954/1993)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에 의하면 이방인 등 낯선 집단과의 직접 접촉 경험의 확대는 이질적 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편견을 줄여줌으로써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Amir(1969)는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이 오히려 편견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긴장 상태일 때의 접촉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Blalock(1967)의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도 이와 유사한 예측을 제시한다. 집단위협이론은 이방인 등 새로운 집단의 유입·접촉 증대는 기존 다수집단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황은영(2014)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과 일정 수준의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는 직접 접촉의 경우 제노포비아 정도를 낮추지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가벼운 직접 접촉은 오히려 제노포비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의 이방인 접촉 경험을 '접촉 및 대화', '체류 및 여행' 문항으로 구성하여 물어보았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친다. Hjerm(2001), Coenders, Lubbers와 Scheepers(2005), 이자형·김경근(2013) 등 다수연구들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혹은 중상계층

일수록 이방인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긍정적·개방적·포용적이며 이방인 혐오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고학력자 및 중상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자원 압박이나 경쟁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여 이방인 유입에 대해 민감하지 않거나, 이국적인 것에 대한 선호 등 중상계층의 성향이 표출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명진·최유정·최샛별, 2010).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이나 관용 등 진보적 인식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고학력자들은 이방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cheepers, Gijsberts, & Hello, 2002). 또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계층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계층 사다리의 상층부에 위치할 개연성이 높다(Espenshade & Hempsted, 1996). 이 경우 이방인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리그'의 자원·경쟁 시장에 있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는 이방인을 수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더한다. 이에'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물어보았다.

셋째, 제노포비아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대체로 자신과 다른 종교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다수연구들도 종교적 배타성이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신동혁, 2010; 홍태영, 2011). 한편, 종교단체들이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현실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최정하·김영화, 2013) 종교 유무를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이방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은 다수의 연구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이방인 혐오도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정하·김영화, 2013; 김용신, 2014). 연령(학년)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방인 혐오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들(Espenshade & Hempstead, 1996)이 다수 존재하는 한편 연령에 따라 역전되는 현상(원숙연, 2019)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별,

학년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3. 분석 방법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 23.0) 및 SPSS PROCESS Macro(Ver. 3.3)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고,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년,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 거주 이방인 직접 접촉 경험 여부, 외국 체류 경험 여부 등에 대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계수가 .6보다 크면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주가설 1>, <주가설 2>와 관련해서는 사회지배성향, 긍정적 미디어 노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변인별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VIF(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등을 산출하여 진단하였다.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Y=f(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의 기본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제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일괄투입(enter)하여 혼란 요인을 통제하였다. 통제 변인 가운데 범주 변인의 속성을 갖는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 이방인 직접 접촉 경험 여부, 외국 체류 경험 여부는 더미(dummy) 처리하였다. <주가설 1>, <주가설 2>는 다중 회귀분석 결과의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a + b_1X_1 + b_2X_2 + b_3X_3 + b_4X_4 + b_5X_5 + b_6X_6 + b_7X_7 + b_8X_8 + b_9X_9 + b_{10}X_{10} + e_i$$

Y :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X_1 : 사회지배성향

X_2 : 긍정적 미디어 노출

X_3 : 부정적 미디어 노출

X_4 : 학년

X_5 : 성(여자=1)

X_6 : 종교 유무(있음=1)

X_7 : 가정의 경제적 수준(중상 이상=1)

X_8 : 아버지의 교육 수준(대졸 이상=1)

X_9 : 이방인 직접 접촉 경험 여부(있음=1)

X_{10} : 외국 체류 경험 여부(있음=1)

e_i : 오차항

<주가설 3>, <주가설 4>와 관련해서는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회귀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효과분해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매개효과의 검증을 좀 더 엄격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Hayes와 Preacher(2014)가 고안한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Ver. 3.3)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해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검증 방식은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검정한 후에 매개변인을 추가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간접효과를 검정하기 때문에 계수에 약간의 감소만으로도 유의도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매개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개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가 있을 경우에도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Preacher & Hayes, 2004).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Sobel(1982)이 제안한 소벨 검정(Sobel test)이다. 소벨 검정은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효과 여부를 판단하여 Baron과 Kenny의 방법보다 엄격하고, 간접효과 크기를 계산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간접효과의 크기가 정규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표본이 작을 경우 이러한 가정에 위배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27)]

Hayes(2013/2015)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제안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소벨 검정과는 달리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비정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28)] 검정력도 높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에서 가끔 소벨 검정과 부트스트래핑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벨 검정보다는 부트스트래핑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Cheung & Lau, 2008)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추가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27) 간접효과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 표준오차를 사용한 소벨 검정(Z 검증)을 실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28)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면 비대칭적인 신뢰 한계들을 제공해 주므로, 간접효과의 표집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을 우회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분석할 표본을 기준으로 표본을 재추출(resampling)하는 방법이다. 원자료 내의 관찰치들이 반복적으로 복원 재추출되며, 표본별로 분석을 진행한 후 다시 결합하여 최종 통계량을 계산한다. Shrout와 Bolger(2002)는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따른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자료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 자료 표본을 모수 추정에 사용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반복 횟수를 5,000번으로 지정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29] 즉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 표본을 생산하여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strap CI)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검증하였다.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29)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5,000개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본다(Hayes, 2013/2015).

Ⅳ.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연구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지배성향과 이방인 관련 긍정적·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사이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 주요 변인의 상관 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고, 연구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Ⅳ-1]과 같다.[30] 학년 분포는 중학교 1학년 25.1%(103명), 중학교 2학년 25.6%(105명), 중학교 3학년 24.4%(100명), 고등학교 1학년 24.9%(102명)로 구성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51.7%(212명), 여학생이 48.3%(198명)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 대상이 성별 및 학년별로 비교적 고르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47.1%(193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 상황을 중상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87.9%(36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체류 및 여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86.6%(355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과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76.8%(315명)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30) 백분율(%) 결과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계가 100.0%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오류가 아니다.

[표 Ⅳ-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학년	중1	103	25.1
	중2	105	25.6
	중3	100	24.4
	고1	102	24.9
성별	남	212	51.7
	여	198	48.3
종교 유무	있음	158	38.5
	없음	252	61.5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층	22	5.4
	중층	195	47.6
	중상층	163	39.8
	상층	30	7.3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5	1.2
	고졸	45	11.0
	대졸	263	64.2
	대학원졸	97	23.7
거주 이방인과의 접촉 경험	없음	95	23.2
	있음	315	76.8
외국 체류 경험	없음	55	13.4
	여행	250	61.0
	체류·거주	105	25.6
계		410	100.0

2. 주요 변인의 기술적 특징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 간 관련성 및 그 강도의 대체적 윤곽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가설 관련 주요 변수들 간에는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구체적으로 종속변인인 제노포비아와 독립변인인 사

회지배성향(r=.824, p<.01)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포비아와 부정적 미디어 노출(r=.169, p<.01)은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노포비아와 긍정적 미디어 노출(r=−.484, p<.01)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제노포비아와 매개변인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r=−.826, p<.01)은 부적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앞서 다중공선성 검증이 필요하다.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우 회귀계수의 신뢰성(reliability)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에 다수의 독립변인이 포함될수록 독립변인이 다른 독립변인들의 선형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형특정화(model specification)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길곤, 2014).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VIF(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 값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Hocking & Pendleton, 198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VIF 값과 공차한계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VIF 값이 모두 1~3 범위 사이의 수치를 보여 10보다 현저하게 작게 나타났으며, 공차한계 값도 .1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를 [표 Ⅳ−2]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는 5점 환산 평균 점수로 볼 때 2.49(SD=.769)로 중앙값인 3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경우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3.68(SD=.756)로 중앙값 이상인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은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M=2.98, SD=.862)보다는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M=3.06, SD=.88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1)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은 성태제(2014)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80~1.00일 때는 '상관이 매우 높다', ±.60~.80일 때는 '상관이 높다', ±.40~.60일 때는 '상관이 있다', ±.20~.40일 때는 '상관이 낮다', ±.00~.20일 때는 '상관이 매우 낮다'로 해석하였다.

주요 변인의 정규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준값인 왜도 ±2 이하, 첨도 ±7 이하의 기준(West, Finch, & Curran, 1995)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표 Ⅳ-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제노포비아	1										
2. 사회지배성향	.824**	1									
3. 긍정적 미디어 노출	-.484**	-.418**	1								
4. 부정적 미디어 노출	.169**	.171**	.345**	1							
5. 이방인에 대한 공감	-.826**	-.792**	.556**	-.094	1						
6. 학년	.154**	.053	-.072	.174**	-.167**	1					
7. 성별	-.115*	-.134**	.084	.056	.113*	-.018	1				
8. 종교 유무	-.007	-.022	.042	.014	.014	-.007	.007	1			
9. 경제 수준	-.035	-.003	.039	-.030	.049	-.173**	-.090	.016	1		
10. 아버지 학력	-.009	-.017	.045	.032	-.010	-.030	-.013	.076	.110*	1	
11. 이방인 접촉 경험	-.073	.023	.186**	.039	.073	-.057	-.117*	.123*	.084	.023	1
12. 외국 체류 경험	.002	.005	.021	-.049	.005	-.032	.008	.018	.185**	.259**	.039
M	2.49	2.21	3.06	2.98	3.68						
SD	.769	.831	.881	.862	.756						
왜도	.574	.663	-.222	-.186	-.721						
첨도	-.455	-.524	-.324	-.404	-.307						

*p<.05, **p<.01

3. 사회지배성향 및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주가설 1>, <주가설 2>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 및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지배성향, 긍정적 미디어 노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을 독립변인으로, 제노포비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년, 성별, 종교 유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교육 수준, 이방인 접촉 경험, 외국 체류 경험 등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일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Ⅳ-3]과 같다.

설정된 회귀모델이 제노포비아를 설명하는 정도(R^2)는 72.5%였으며, 모델 전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df=10,399)}$=105.295, p=.000). 따라서 이 회귀모델은 제노포비아를 예측하는 데 양호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1.022~1.666 범위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된다.[32] 그러므로 이 회귀모델은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먼저 <주가설 1>을 살펴보면, 사회지배성향은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수준에서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모든 변인의 값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사회지배성향이 1단위 높아지면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는 .662

32) Durbin-Watson 지수는 오차항 간 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 여부로 회귀계수에 대한 검증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Durbin-Watson 지수가 0에 가까우면 양의 자기 상관(positive autocorrelation), 4에 가까우면 음의 자기 상관(negative autocorrelation), 2에 가까울수록 자기 상관이 없어 서로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인 경우 회귀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이일현, 2014: 65-65).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662, p=.000). 따라서 <주가설 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Ⅳ-3]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에 따른 제노포비아 변화 회귀분석

변인	B	SE	β	t	p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1.156	.145		7.976	.000		
사회지배성향	.662	.029	.715	22.599	.000***	.687	1.455
긍정적 미디어 노출	-.180	.030	-.206	-6.097	.000***	.600	1.666
부정적 미디어 노출	.096	.028	.107	3.452	.001**	.713	1.402
학년	.054	.019	.078	2.845	.005**	.919	1.089
성별(여=1)	-.020	.041	-.013	-.491	.624	.952	1.051
종교유무(있음=1)	.036	.042	.023	.863	.389	.979	1.022
경제수준(중상이상=1)	-.012	.042	-.008	-.292	.771	.922	1.085
부학력(대졸이상=1)	.021	.063	.009	.333	.739	.921	1.086
이방인접촉경험(있음=1)	-.087	.044	-.054	-1.985	.048*	.916	1.091
외국체류경험(있음=1)	.026	.062	.011	.412	.681	.902	1.108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852	.725	.718	.408	1.457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회귀모형	175.476	10	17.548	105.295	.000***
잔차	66.494	399	.167		
전체	241.971	40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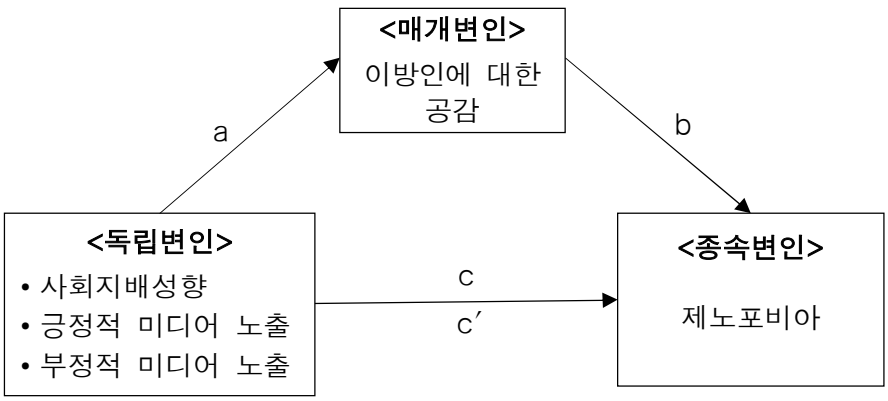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가설 2>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p<.001 수준에서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모든 변인이 동일하다면, 이방인과 관련된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1단위 더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는 .180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B=-.180, p=.000). 이에 <가설 2-1>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p<.01 수준에서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로 미루어 보아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이방인과 관련된 부정적 미디어에 1단위 더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096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96, p=.001). 이에 <가설 2-2>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 밖에, p<.01 수준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제노포비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4, p=.005). p<.05 수준에서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직접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제노포비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87, p=.048)

4.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

사회지배성향·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방식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그림 Ⅳ-1] 참조).



[그림 Ⅳ-1] 매개효과 분석모형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a가 유의함)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을 제외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c가 유의함)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b와 c′가 유의함) 살펴본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c)를 직접효과(c′)와 간접효과(a×b)로 분해할 수 있다. 이 때 총 효과는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c′)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a×b)의 합이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의 역할에 따라 완전 매개 효과와 부분 매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3단계 분석 결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b가 유의함)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지는 경우(c′가 유의하지 않음)에는 완전 매개 효과(completely mediate)가 있다고 본다. 반면 매개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독립변인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2단계에서보다 회귀계수의 영향력이 감소(c′가 유의하지만 c보다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부분 매개 효과(partially mediate)가 있다고 본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좀 더 엄격히 하기 위해 Hayes와 Preacher(2014)가 고안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a×b)의 통계적 유의성을 재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Baron과 Kenny(1986)의 분석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인한 오해석-예를 들면 세 단계의 검증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 등-을 방지해줄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검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므로 매개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해줄 수 있다.

이에 SPSS PROCESS Macro(Ver. 3.3)의 단순 매개 모델 4(the Simple Mediation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의 Model 4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경로계수를 측정하여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매개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의 수는 5,000개로 지정하였다.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내에서 간접효과 상한값(ULCI)과 하한값(L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1)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주가설 3>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Ⅳ-4]와 같다.

[표 Ⅳ-4]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β	t	β	t	β	t
통제변인	학년	−.117	−3.894***	.103	3.703***	.052	2.085*
	성별	.017	.569	−.014	−.517	−.007	−.283
	종교유무	−.013	−.427	.023	.821	.017	.702
	경제수준	.023	.742	−.010	−.361	.000	−.015
	부학력	−.031	−1.024	.009	.308	−.005	−.193
	접촉경험	.086	2.871**	−.089	−3.194**	−.052	−2.069*
	체류경험	.006	.189	.004	.142	.007	.260
독립변인	사회지배성향	−.787	−26.419***	.819	29.596***	.477	11.760***
매개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435	−10.602***
R^2(adj R^2)		.652(.645)		.699(.693)		.765(.760)	
F		94.017***		116.601***		144.925***	
VIF		1.022~1.103		1.022~1.103		1.022~2.876	

*p<.05, **p<.01, ***p<.001

1단계(독립변인→매개변인)에서 학년, 성별, 종교 유무 등을 통제하고 사회지배성향을 독립변인에, 매개변인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종속변인에

투입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65.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94.017, p<.001).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지배성향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787, p<.001)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2단계(독립변인→종속변인)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지배성향이 종속변인인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델은 69.9%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16.601, p<.001).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819, p<.001) 사회지배성향이 강할수록 제노포비아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3단계(독립/매개변인→종속변인)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사회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76.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44.925, p<.001). 사회지배성향(β=.477, p<.001)과 이방인에 대한 공감(β=-.435, p<.001)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2단계에서 유의하였던 사회지배성향의 영향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19→β=.477). 따라서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제노포비아에 간접적인 영향력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재검증하였다. 사회지배성향,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제노포비아의 관계에 대한 효과성을 분해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도출된 간접효과 계수는 .317이었으며 간접효과 하한값(LLCI)은 .235, 상한값(ULCI)은 .397로 나타났다.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지배성향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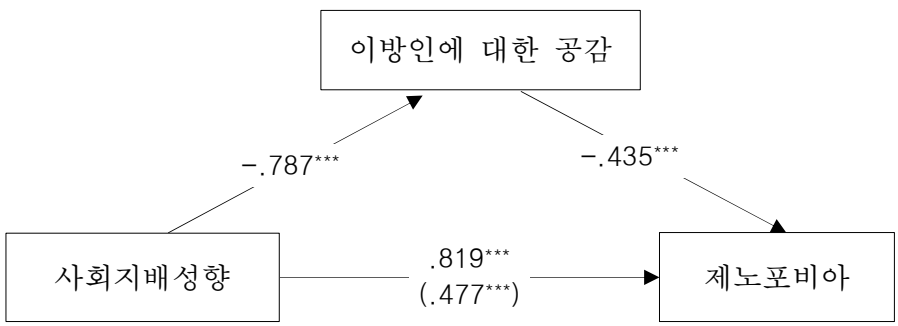
노포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한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주가설 3>을 채택하였다.

[표 Ⅳ-5]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사회지배성향

경로	제노포비아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총 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사회지배성향 → 이방인에 대한 공감 → 제노포비아	.441 (.367~.515)	.317 (.235~.397)	.758 (.708~.808)

유의수준: 5%, 부트스트래핑 샘플 수: 5,000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고등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Ⅳ-2]와 같다. 예측 변인이 준거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회귀계수 β 값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Ⅳ-2]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부분매개모형

2)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가설 4-1>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β	t	β	t	β	t
통제변인	학년	-.126	-3.037**	.118	2.698**	.017	.593
	성별	.062	1.505	-.072	-1.648	-.022	-.774
	종교유무	-.004	-.086	.012	.272	.009	.317
	경제수준	.018	.432	-.008	-.170	.007	.244
	부학력	-.037	-.874	.011	.247	-.019	-.640
	접촉경험	-.029	-.682	.012	.267	-.011	-.386
	체류경험	-.003	-.077	.014	.307	.011	.381
독립변인	긍정적 미디어 노출	.548	13.084***	-.473	-10.682***	-.033	-.954
매개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803	-23.367***
R^2(adj R^2)		.332(.319)		.255(.240)		.685(.678)	
F		24.925***		17.132***		96.593***	
VIF		1.022~1.102		1.022~1.102		1.022~1.504	

**p<.01, ***p<.001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매개변인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33.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4.925$, $p<.001$).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548$, $p<.001$)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2단계에서 모델은 25.5%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132$, $p<.001$).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73$, $p<.001$). 3단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68.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96.593$, $p<.001$).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eta=-.033$, $p>.05$),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제노포비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03$, $p<.001$).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독립변인(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2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있지만, 3단계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따라서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 경험은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제노포비아에 간접적으로만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방인과 관련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높아지고,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높을수록 제노포비아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유의미한 매개 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재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도출된 간접효과 계수는 -.384였으며 간접효과 하한값(LLCI)은 -.447, 상한값(UL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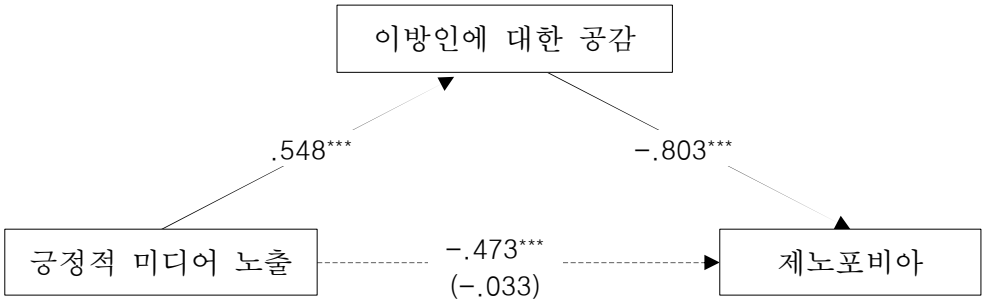
은 −.323으로 나타났다.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한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가설 4−1>을 채택하였다.

[표 Ⅳ−7]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긍정적 미디어 노출

경로	제노포비아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총 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긍정적 미디어 노출 → 이방인에 대한 공감 → 제노포비아	−.028 (−.087~.030)	−.384 (−.447~−.323)	−.412 (−.488~−.336)

유의수준: 5%, 부트스트래핑 샘플 수: 5,000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Ⅳ−3]과 같다.



*실선은 유의미한 영향,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냄.

[그림 Ⅳ−3]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완전매개모형

3)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가설 4-2>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Ⅳ-8]과 같다.

[표 Ⅳ-8]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종속변인: 제노포비아	
		β	t	β	t	β	t
통제변인	학년	-.142	-2.828**	.115	2.313*	.000	-.007
	성별	.127	2.575*	-.134	-2.744**	-.031	-1.096
	종교유무	.004	.089	.005	.094	.008	.291
	경제수준	.030	.584	-.018	-.359	.006	.209
	부학력	-.013	-.248	-.015	-.296	-.025	-.869
	접촉경험	.080	1.619	-.088	-1.779	-.022	-.786
	체류경험	-.010	-.186	.025	.491	.017	.588
독립변인	부정적 미디어 노출	-.078	-1.576	.161	3.271**	.098	3.439**
매개변인	이방인에 대한 공감					-.813	-28.563***
R^2(adj R^2)		.053(.034)		.068(.049)		.693(.686)	
F		2.796**		3.630***		100.432***	
VIF		1.021~1.106		1.021~1.106		1.021~1.106	

*p<.05, **p<.01, ***p<.001

1단계에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을 독립변인에,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종속변인에 투입하였다. 모델은 5.3%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796, p<.01). 분석 결과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8, p>.05). 2단계에서는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6.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630, p<.001).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1, p<.01). 3단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69.3%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00.432, p<.001). 부정적 미디어 노출(β=.098, p<.01)과 이방인에 대한 공감(β=−.813, p<.001)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제노포비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단계에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기에 추가 분석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제노포비아의 부정적 미디어 노출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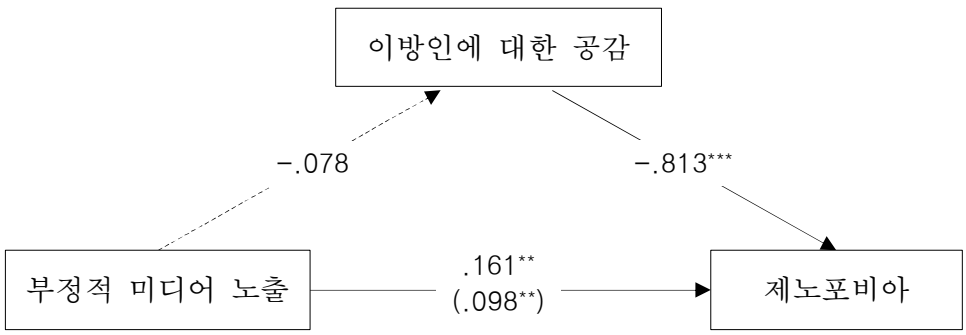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재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부정적 미디어 노출

경로	제노포비아 결과		
	직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총 효과 비표준 계수 (LLCI~ULCI)
부정적 미디어 노출 → 이방인에 대한 공감 → 제노포비아	.087 (.037~.136)	.056 (−.018~.135)	.143 (.057~.230)

유의수준: 5%, 부트스트래핑 샘플 수: 5,000

도출된 간접효과 계수는 .056이었으며 간접효과 하한값(LLCI)은 −.018, 상한값(ULCI)은 .135로 나타났다.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설 4−2>를 기각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Ⅳ−4]와 같다.



*실선은 유의미한 영향,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냄.

[그림 Ⅳ−4]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Ⅴ. 결론

다문화사회로의 진행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방인 혐오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양한 이방인 집단들과의 공존을 위해 인간 존중, 타인 배려 등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필수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주류집단 학생들이 이방인에게 보이는 혐오적 태도인 제노포비아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행동을 규제(regulation)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차별적 태도인 제노포비아 그 자체이며, 그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심리적·구조적 요인들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에 심리학 및 사회학과 사회과교육의 통섭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적 태도 형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발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교육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후,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대한 사회지배성향 및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420명을 편의 표집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1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 23.0) 및 SPSS PROCESS Macro(Ver. 3.3)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회지배성향·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년, 성별, 사회·경제적 변수 등을 통제하고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검증 절차와 함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62, p<.001). 둘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부(−)적인 영향(B=−.180, p<.001)을 미치는 반면,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은 제노포비아에 정(+)적인 영향(B=.09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β=−.206, p<.001)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β=.107, p<.01)보다 제노포비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317,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235~.397).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는 긍정적/부정적 미디어 노출이냐에 따라 매개 효과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경우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384,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447~−.323). 그러나,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 비표준 계수: .056, 편의수정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018~.135).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Ⅴ−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Ⅴ−1] 연구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내용	가설 채택여부
주가설1	**중·고등학생의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주가설2	**미디어 노출은 중·고등학생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2−2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내용에 노출될수록 제노포비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주가설3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주가설4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1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완전매개)
4−2	중·고등학생의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매개않음)

이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 그 의미 및 사회과교육에의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배성향이 이민자, 외국인, 난민, 소수민족 등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과 박해의 강력한 예측자임을 증명한 선행연구의 결과(Sidanius & Pratto, 2001; Altemeyer, 2004; Thomsen, Green, & Sidanius, 2008)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심리적 특성인 사회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와 관련 있다는 것은 교육정책 등 위로부터의 하향식(top down) 변화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신념 등 저변에서부터의(bottom up) 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가치교육을 강조하는 사회과교육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성향을 성찰하게 하는 가치 교육적 방법, 사회지배성향으로 인한 이방인 혐오를 극복하는 자기 내면의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권장하는 가치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사회지배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존중과 보편 인권'을 강조하는 현재의 시민성교육 및 다문화 교육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사회지배성향은 자기 고양 가치로서 위계질서와 권력을 중요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 반면, 인간 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초월 가치로서 평등·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이방인에 대해 보다 평등한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Schwartz, 1992). 그러므로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가치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지배성향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혐오의 원인이 단순히 '주류집단'과 '이방인(비주류 집단)' 사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제노포비아는 이방인을 집단적 '우리'에서 고립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회지배성향이 유발하는 이방인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류집단끼리의 폐쇄적이고'강한 연대(strong ties)'의 '우리'가 아니라 주류집단과 이방인 사이의 '느슨

한 연대(weak ties)'의 '우리'를 교육과정 안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33] 이 때 '느슨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과 허술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진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라는 범주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을 포함하게 될 때 폐쇄적 맥락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이방인을 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지배성향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대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제노포비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방인을 자신들의 권력 및 이익 추구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공략하는 설득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방인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규범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방인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34]가 교육과정 안에서 제시될 때 사회지배

---

33) 사회 연결망 이론(network theory)에서 강조하고 있는 약한 연대의 중요성은 Granovetter(1983)에 의해 제기되었다. 비슷한 주류집단끼리의 강한 연대는 그 속성상 특정 집단 내부에만 응집하는 폐쇄성을 가질 경향이 있고, 특정 가치나 인종·민족 등에 따라 우열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방인 등과 지나치게 경계를 두게 하여 사회를 발전시킬 새로움을 공유하기 힘들게 한다. 그에 비해 느슨한 관계인 약한 연대에서는 강한 연대보다 정보 전달력이 높고, 나와 다른 이방인에게서 성장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Granovetter(1983)는 강한 연대와 약한 연대 모두 정보 교환 역할을 수행하지만, 약한 연대가 더 의미 있다고 주장하였다.

34) 2050년경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박영숙·Glenn, 2016).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가 이방인을 거부하고 반감을 가진다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등 발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조세현(2012)은 외국인 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경제적·비경제적 측면 포함)을 분석한 결과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고, 순편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향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보편적 결과(최정하·김영화, 2013; Seate & Mastro, 2016)가 도출되었다. 이는 간접접촉 이론 중 의사사회 접촉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방인과의 직접 접촉 또한 제노포비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Allport, 1954/1993; Pettigrew & Tropp, 2006). 그러나 이방인과 직접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생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접촉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이방인에 대해 이미 심한 편견이나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 자체를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Tredoux & Finchhilescu, 2007). 이처럼 직접 접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 미디어 노출을 활용하여 향후 이방인과의 접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촉진하거나 제노포비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이방인과 관련된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제노포비아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설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의 결과(가상준·김재신·임재형, 2014; 우충완·우형진, 2014)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배양가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는 그것을 보는 주류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이방인 혐오를 증가시킬 수 있다. 부정적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제노포비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까닭은 이방인 혐오가 이방인과의 실제 상호작용에서 발생한 갈등과 충돌의 경험에서 발원한 것이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담론으로 형성된 일종의 '사회적 상상력'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한건수, 2012). 만일 나비가 사는 곳이 더러운 하수도라면 나비도 쥐처럼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처럼, 미디어에서 나쁜 역할 및 불쾌한 메시지 등으로 재현된 이방인은 주류집단 학생들에게 혐오적 조건이 형성되어 제노포비아를 강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이미나, 20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학습 과정'[35]을 말한다(Buckingham, 2004). 이를 제노포비아와 연관 지으면, 이방인 관련 미디어 메시지의 편향된 재현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고' 논의하는 경험이 사회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해 미디어 메시지를 '쓰는(제작할 수 있는)'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예컨대 국내 거주 이방인들의 삶을 조명하거나,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을 조명하는 미디어 메시지 제작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β=.107, p<.01)보다 긍정적 미디어 노출(β=−.206, p<.001)이 제노포비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미디어는 대개 그 속성상 자극적·부정적·폭력적인 것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적·긍정적·사회 통합적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보다는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다. 부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서 교육적·사회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방인 관련 영향을 받는 주체가 주로 '학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정의철·이창호, 2007; 원숙경, 2014). 본 연구에서도 이방인 관련 부정적 미디어 노출(M=2.98)보다는 긍정적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M=3.06)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이 부정적 노출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

3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읽는다'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성찰의 능력을 말하고, '쓴다'는 것은 미디어 텍스트를 자신의 의도대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미나, 2015: 143).

동시에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영향력이 부정적 노출의 영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사회과교육에 희망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Fredrickson과 Losada(2005)는 1개의 부정적 경험은 2.9개의 긍정적 경험이 있어야 상쇄될 수 있다는 로사다 비율(Losada ratio)[36]을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학교 안 사회과 교육을 통한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확대는 학교 밖 부정적 미디어 노출의 경험을 상쇄하고, 제노포비아를 완화하는데 일정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발견 결과로 미디어는 이방인 문제를 선택하고 재현하는 기능을 통해 제노포비아의 감소와 확대라는 양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제노포비아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과 다문화 교육 안에서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결합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지배성향·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지배성향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배성향은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도 영향을 주고 다시 공감이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배성향이 강한 학생이 제노포비아가 높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감하는 대상인 이방인에게 편파적인 시선을 보내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같은 집단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평균적으로 덜 공감한다는 선행연구(Krebs, 1975; Lamm, Meltzoff, & Decety, 2010)가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회지배성향이

36) Fredrickson과 Losada(2005)는 성공한 조직은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칭찬과 긍정이 부정보다 많음(긍정 2.9 : 부정 1)을 밝혔다. 이를 '로사다 비율'이라 부른다. 비율 도출 과정에 수학적·통계적 오류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으나, "긍정이 성공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긍정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

강한 학생들은 자신의 내집단 편을 들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로 인해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공감이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편들기를 통해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Prinz, 2011). 이러한 결과는 공감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감 관련 연구들에서 간과해 온 공감의 한계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방인 관련 긍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긍정적 미디어 노출은 학생들의 제노포비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적 완충 과정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방인에 대한 공감(매개요인)이 없어지면 긍정적 미디어 노출(독립변인)이 제노포비아(종속변인) 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노포비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미디어 노출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함양하는 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제노포비아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끝으로, 부정적 미디어 노출과 제노포비아의 관계에서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수락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중·고등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정적 미디어 노출의 정도가 적어 이방인에 대한 공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거나, 혹은 이를 압도할 만큼 효과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효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해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공감'을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학생들이 이방인에 대한 공감 정도를 그대로 나타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의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Dunton & Fazio, 1997)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공감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제노포비아 해결을 위한 사회과 다문화 교육에 '공감 교육' 접목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시사할 수 있다. 이방인을 포용하는 역지사지의 진정성 등 공감 교육이 수반된 다문화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아울러 다문화 공감 교육에서는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공감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회지배성향과 관련된 공감의 내집단편향을 인식하게 되면 유사성이라는 관계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으로까지 공감이 확장되도록 할 수 있다. 주류집단에 지나치게 공감하면 오히려 이방인 혐오가 조장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 공감의 한계를 이해하게 되면, 공감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우며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감의 태도를 당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가치로서 교육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공감 교육은 이방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함께 느끼는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공감이 왜곡되고 과장되는지의 문제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제노포비아 유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이방인에 대한 공감의 매개 효과를 통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와 연구 방법상의 한계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제노포비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도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서울·경기도 지역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 등에 비하여 외국인의 학력이나 소득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행정안전부, 2019). 지역에 따라 거주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나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 관련 태도 연구에 따르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McKown, 2005), 지역사회 내 외국인의 수(다문화 밀접지역 거주 여부)(한윤선·김부경·전수아, 2014)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적 범위를 넓히거나 혹은 지역에 따른 제노포비아 양상의 차이를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변화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제노포비아 변화 양상 및 변인들 간 인과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면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제노포비아를 조사함에 있어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인과 관계 추론에 한계가 있다. 향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보다 장기적인 기간을 바탕으로 한 종단 연구가 실시된다면 각 연령 또는 학년에 적합한 제노포비아 인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방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출신국,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 종교, 인종,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원숙연, 2019).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의 영향 관계가 인종·국적별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노포비아 양상 정도는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노포비아 양상은 다층성(multi-layered perspectives)을 띨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이방인' 또는 '외국인 등'으로 통칭하였기에 그 개별적인 영향력까지는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이러한 요인을 세분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방인 집단의 구체적 구분은 학생들이 각 이방인 집단마다 같거나 혹은 다르게 느끼는 제노포비아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노포비아 해소를 위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제노포비아가 달라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서 미디어 종류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막대한 양의 이방인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노포비아와 관련해 뉴 미디어의 영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2016). 특히 소셜 미디어(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증대시켜 개인의 견해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현상[37]을 유발하여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제노포비아 및 증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Bursztyn, Egorov, Enikolopov, & Petrova, 2019). 텔레비전,

37) 필터 버블은 대형 인터넷 정보기술(IT) 업체가 이용자의 성향, 관심사에 맞춰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비슷한 성향 이용자를 하나의 버블 안에 가두는 현상을 뜻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보고 싶은 뉴스 등만 보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열린 정보의 초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정보의 성벽' 안에서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한다(Pariser, 2011).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는 시민성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소셜 미디어는 오히려 관용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금희조(2011)의 연구도 눈여겨볼 만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미디어에 주목하여 미디어의 종류에 따른 제노포비아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가상준·김재신·임재형(2014).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1), 65-92.

강진구(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2, 5-34.

강하윤(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0(3), 51-70.

고길곤(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고양: 문우사.

구정우·김선웅·김두년·유성상·정병은·신인철(2016).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구정화·박선웅(2011). “다문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목표 체계 구성”. 『시민교육연구』, 43(3), 1-27.

구정화·박윤경·설규주(2009). 『다문화 교육 이해』. 서울: 동문사.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_____(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금희조(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연계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4), 162-186.

김경희(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뉴스 초점이주민과 주변인물(한국인·이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7-46.

김미진·김경은(2018). “국내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1(1), 1-27.

김상운(2016). “제노포비아 확산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408-417.

김세균·김수해·송태수·이환식·임종헌·장명학(2006). 『유럽의 제노포비아』. 서울: 문화과학사.

김세은·김수아(2008).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재현 :외국인 노동자 보도 분석”. 『다문화사회연구』, 1(1), 39-73.
김승환(2013). “이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관성 연구』, 26, 39-55.
김용신(2014).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 분석을 위한 개념과 지표의 구축”. 『 국제지역연구』, 18(1), 173-200.
김예솔란·여민구·이미나(2018). “미디어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20대 여성의 신체 만족도와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규범의 역할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3(3), 43-84.
김현희(2016). “외국인 범죄/테러리즘과 반다문화 정서의 글로벌화: 시화호 토막살인사건과 파리 연쇄테러사건을 중심으로”. 『OUGHTOPIA』, 31(1), 213-242.
류근관(2013). 『통계학』. 서울: 법문사.
모경환·임정수(2011). “사회과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17(1), 261-290.
박경태(2009). 『인종주의』. 서울: 책세상.
박상조·박승관(2016).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145-177.
박성희(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박영숙·Glenn, J. (2016). 『유엔미래보고서 2050』. 파주: 교보문고.
박종수(2017). “한국사회의 이슬람 혐오 현상과 쟁점: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9), 49-70.
박하나(2015). “다문화 감수성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8(2), 47-68.
성태제(2014). 『SPSS/AMOS/HLM을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소병일(2014). “공감과 공감의 윤리적 확장에 관하여: 흄과 막스 셸러를 중심으로”. 『철학』, 118, 197-225.
송태수(2006). “현대 유럽의 제노포비아 현상 비교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 비교”. 『유럽연구』, 23, 253-282.

신동혁(2010). “현대 러시아에서 제노포비아와 종교”. 『슬라브학보』, 25(4), 161-190.
심성옥(1999).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예비연구”. 『연구논총』, 8, 141-175.
양계민(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여성신문(2019.06.17.). “‘다문화’는 차별·혐오의 용어...없애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538
오상화·나은영(2002). “대중매체 소비가 여대생의 신체변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3(2), 141-160.
우충완·우형진(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185-226.
원숙경(2014). “타자의 시선으로 재현된 이주민: 영화 <방가? 방가!>와 <완득이>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1), 109-134.
원숙연(2019). 『다문화사회의 다층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유일상(2002). 『매스미디어 입문』. 서울: 청년사.
윤인진(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2016). “미래 청소년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3(3), 1-30.
이두희(2003). 『통합적 인터넷 마케팅』. 서울: 박영사.
이명진·최유정·최샛별(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이미나(2009).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 교육 수업사례 제안”. 『시민교육연구』, 41(3), 139-181.
_____(2015). “사회문제의 일화 vs. 주제적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인지, 정의적 효과 비교”. 『시민교육연구』, 47(3), 147-183.

이선영(2013). “다문화 시민성의 구성요소로서 공감의 확장성.” 『글로벌교육연구』, 5(2), 47-68.

이연옥·박병현·장덕현(201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국내 주요 일간신문 사설을 중심으로.”『여성학연구』, 22(2), 33-69.

이일현(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

이자형·김경근(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 53-77.

이재신·김지은·최문훈(2011). “보도사진 속 감정과 댓글이 공감을 통해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9(1), 135-170.

이정기·황우념(2020). “20대 대학생들의 지속적 일본 관광 불매 의도 결정요인 연구-불매운동 미디어 노출, 일본 인식, 불매운동 효능감 인식,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9, 315-352.

이종원(2014).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캐머런의 국민투표 제안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2(3), 41-62.

이철현(2013). “다문화 교육 강좌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 『다문화교육연구』, 6(3), 135-160.

이현정·안재웅·이상우(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34-57.

임양준(2012). “한국 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2(4), 419-456.

임종헌(2006).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6(1), 55-82.

정용교(2017). “사회과교육의 대안으로서 공감 시민 육성”. 『사회과교육』, 56(4), 1-15.

정의철·이창호(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스 워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6), 84-110.

조세현(2012).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2-166.
조영달·박윤경·성경희·이소연·박하나(2010). “학교 다문화 교육의 실태 분석”. 『시민교육연구』, 42(1), 151-184.
차경수·모경환(2017).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채영길(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 나타난 이주민 타자화 프레이밍의 시계열적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2), 205-241.
추병완(2012). 『다문화사회에서의 반편견 교수 전략』. 서울: 도서출판 하우.
최아영(2010). “현대 러시아 스킨헤드에 대한 단상”. 『Russia & Russian Federation』, 1(2), 6-11.
최영미(2016). “제노포비아 현상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1, 109-144.
최정하·김영화(2013). “초등학생의 가정요인이 외국인 혐오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6(4), 79-105.
최지영·김재철(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한건수(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 113-143.
한윤선·김부경·전수아(2014).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환경 요인과 다문화 밀집 지역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97-125.
한희정(2016).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3-79.
행정안전부(2019).□『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http://blog.naver.com/mopaspr/221694278069
허경미(2014). “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1), 233-259.

허윤철·임영호(201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6(3), 267-302.

허찬행·심영섭(2015). “TV 매체가 재현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현실: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1), 325-363.

헤럴드경제(2012.04.16.). “제노포비아 타깃 된 다문화의 상징 이자스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416000548&md=20120617124222_BL

홍태영(2011).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민족주의”. 『한국정치연구』, 20(2), 235-260.

황세영·강정석·강혜자(2017). “사회지배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의 조절 효과”. 『지역과 세계』, 41(3), 181-206.

황우념·이정기(2017). “대만 미디어 콘텐츠 노출이 한국인의 대만 인식, 대만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15(3), 135-182.

황은영(2014). 제노포비아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황태연(2015).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파주: 청계.

황희숙(2017). “공감의 빛과 그늘”. 『철학논집』, 48, 155-177.

Adam, H. & Moodley, K. (2015). Realities and discourses on South African xenophobia. *Strategic Review for Southern Africa*, 37(1), 200-204.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이원영 역(1993), 『편견의 심리』, 서울: 성원사.

Altemeyer, B. (2004). Highly dominating, highly authoritarian personaliti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4(4), 421-448.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5), 319-342.

Andreychik, M. R. & Gill, M. J. (2012). Do negative implicit associations indicate negative attitudes? Social explanations moderate whether ostensible "negative" associations are prejudice-based or empathy-base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5), 1082-1093.

Armstrong, G. B., Neuendorf, K. A., & Brentar, J. E. (1992). TV entertainment, news, and racial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2, 153-176.

Arendt, F. & Northup, T. (2015). Effects of long-term exposure to news stereotypes on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2370-2390.

Bagozzi, R. P. & Moore, D. J. (1994).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Emotions and empathy guide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58(1), 56-70.

Balkaran, S. (1999). Mass media and racism. *The Yale Political Quarterly,* 21(1), 19-32.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Media Psychology*, 3(3), 265-299.

Banks, J. A. (2004). Teaching for social justice, diversity, and citizenship in a global world. In *The Educational Forum* (Vol. 68, No. 4, pp. 296-305). Taylor & Francis Group.

_____(2007).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_____(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모경환·최충옥·임정수 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Bassett, J. F. (2010).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attitudes toward illegal immigrants. *Social Psychology*, 41, 52-55.

Batson, C. D. & Ahmad, N. Y. (2009).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1), 141-177.

Batson, C. D., Batson, J. G., Slingsby, J. K., Harrell, K. L., Peekna, H. M., & Todd, R. M. (1991). Empathic joy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13-426.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 Birch, K.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2), 290-302.

Batson, C. D., Po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et a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105-118.

Bavin, P. S. (2007). Social geography of xenophobia and tolerance. *Russian Politics and Law,* 45(4), 56-77.

Bäckström, M. & Björklund, F. (2007). Structural modeling of generalized prejudice: The role of social dominance, authoritarianism, and empathy.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28(1), 10-17.

Bennett, C. I. (1986).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김진호·신인순·김옥순 역(2009),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15-631.

Berry, J. W. & Kalin, R.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3), 310-320.

Bhawuk, D. P. & Brislin, R. (1992).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6(4), 413-436.

Boehnke, K., Hagan, J., & Hefler, G. (1998). On the development of xenophobia in Germany: The adolescent years.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585-602.

Bogatz, G. A. & Ball, S. (1971). The second year of Sesame Street: A continuing evaluation: a report to the children's television workshop (Vol. 1). *Educational Testing Service*.

Blalock, H.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Vol. 325). New York: Wiley.

Bloom, P. (2016).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London: Penguin Random House.

Breen, M. J., Devereux, E., & Haynes, A. (2006). Fear, framing and foreigners: The othering of immigrants in the Irish print media. *Critical Psychology,* 16, 100-121.

Brown, R. (2011). *Prejudice: Its Social Psychology*. 박희태·류승아 역(2017), 『편견사회-당신은 편견에서 자유로운가』, 서울: 학지사.

Buckingham, D. (2004). *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기선정·김아미 역(2004), 『미디어교육-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서울: jNBook.

Buffone, A. E. & Poulin, M. J. (2014). Empathy, target distress, and neurohormone genes interact to predict aggression for others-even without provo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1), 1406-1422.

Bursztyn, L., Egorov, G., Enikolopov, R., & Petrova, M. (2019). Social media and xenophobia: evidence from Russi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47.

Cacioppo, J. T. & Gardner, W. L. (1999). Emo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191-214.

Cashmore, E. (1994). *Xenophobia.* In E. Cashmore et al. (Eds.), *Dictionary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London: Routledge.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Cheung, G. W. & Lau, R. S. (2008).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96-325.

Chiao, J., Mathur, V., Harada, T., & Lipke, T. (2009). Neural basis of preference for human social hierarchy versus egalitarianism.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67(1), 174-181.

Coenders, M. T. A., Lubbers, M., & Scheepers, P. L. H. (2005).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norities in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Results from the Standard Eurobarometer 1997-2000-2003 [report 2].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988-998.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1-19.

_____(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Deutsch, F. & Madle, R. A. (1975). Empathy: Historic and current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a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18, 267-287.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1), 5-18.

De Waal, F. (2010). *The Age of Empathy: Nature's Lessons for a Kinder Society*. 최재천 역(2017), 『공감의 시대』, 서울: 김영사.

Duan, C. (2000). Being empathic: The role of motivation to empathize and the nature of target emotions. *Motivation and Emotion*, 24(1), 29-49.

Duan, C. & Hill, C. (1996). The current state of empath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3), 261-274.

Duckitt, J. & Sibley, C. G. (2007). Right 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the dimensions of generalized prejudi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Published for the European Associ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y*, 21(2), 113-130.

Dunton, B. C. & Fazio, R. H. (1997). An individual difference measure of motivation to control prejudiced rea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3), 316-326.

Eagly, A. H. & Wood, W. (1991). Explaining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meta-analytic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306-315.

Ehrlich, P. R. & Ornstein, R. (2010) *Humanity on a Tightrope.* 고기탁 역(2012), 『공감의 진화』, 서울: 에이도스.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

Eisenberg, N. & Strayer, J. (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13). New York: New York.

Ellison, C. G. & Powers, D. A. (1994). The contact hypothesis and racial attitudes among Black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75(2), 385-400.

Espenshade, T. J. & Hempstead, K.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2), 535-570.

Esses, V. M., Dovidio, J. F., Jackson, L. M., & Armstrong, T. L.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 389-412.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2001),『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Ford, T. E. (1997). Effects of stereotypical television portrayals of African-Americans on person percep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3), 266-275.

Fraser, N. (2010).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김원식 역(2010),『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그린비.

Fredrickson, B. L. & Losada, M. F. (2005). Positive affect and the complex dynamics of human flourishing. *American Psychologist,* 60(7), 678-686.

Galinsky, A. D. & Moskowitz, G. B. (2000). Perspective-taking: decreasing stereotype expression, stereotype accessibility, and in-group favorit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08-724.

Gay, G. & Howard, T. C. (2000).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The Teacher Educator*, 36(1), 1-16.

Gerber, A. S., Huber, G. A., Doherty, D., Dowling, C. M., & Ha, S. E. (2010). Personality and political attitudes: Relationships across issue domains and political contex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111-133.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o. 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17-40.

Gonçalves e Silva, P. B. (2004).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Brazil: The contribution of Indian people and Blacks in the struggle for citizenship. In. J. A. Banks (Eds.),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pp. 185-217). San Francisco: Jossey-Bass.

Gorham, B. W. (1999). Stereotypes in the media: So what.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 10, 229-247.

Granovetter, M.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Sociological Theory*, 201-233.

Haley, H. & Sidanius, J. (2006). The positive and negative framing of affirmative action: A group dominance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5), 656-668.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1-443.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이형권 역(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파주: 신영사.

Hayes, A. F. & Preacher, K. J. (2014).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67 (3), 451-470.

Heaven, P. C. (1999). Attitudes toward women's rights: Relationships with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olitical group identities. *Sex Roles*, 41(7-8), 605-614.

Hein, G., Silani, G., Preuschoff, K., Batson, C. D., & Singer, T. (2010). Neural responses to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suffering predict individual differences in costly helping. *Neuron*, 68(1), 149-160.

Hindriks, P., Verkuyten, M., & Coenders, M. (2014). Dimension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roles of legitimizing myths and national iden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6), 538-549.

Hjerm, M. (1998).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41(4), 335-347.

_____(2001). Education, xenophobia and nationalism: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1), 37-60.

Ho, A. K., Sidanius, J., Pratto, F., Levin, S., Thomsen, L., Kteily, N., & Sheehy-Skeffington, J. (2012).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evisit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583-606.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Henkel, K. E.,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_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Hocking, R. R. & Pendleton, O. J. (1983).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s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12(5), 497-527.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The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박재주·박균열 역(2011), 『공감과 도덕발달』, 서울: 철학과 현실사.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3), 307-316.

Horton, D. & Wohl, R. R. (1956). Mass Communication and parasocial interaction: Observations on intimacy at a distance. *Psychiatry*, 19, 215-229.

Hunter, J. D. (2000). *The Death of Character: Moral Education in an Age Without Good or Evil,* New York: Basic Books.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4), 589-611.

Jones, R. (2011). Intolerable intolerance: Toxic xenophobia and pedagogy of resistance. *The High School Journal,* 95(2), 34-45.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209-232.

Kittler, A. (1985). *Aufschreibsysteme 1800/1900.* Muenchen: Wilhelm Fink.

Kohn, A. (1990). *The Brighter Side of Human Existence: Altruism and Empathy in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Krebs, D.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6), 1134-1146.

Krejcie, R. V. & Morgan, D. 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3), 607-610.

Kumar, R. & Seay, N. (2011). Shades of white: Identity status, stereotypes, prejudice, and xenophobia. *Educational Studies,* 47, 347-378.

Kurtz, R. R. & Grummon, D. L. (1972). Different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of therapists empathy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rapy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1), 106-115.

Lamm, C., Meltzoff, A. N., & Decety, J. (2010). How do we empathize with someone who is not like US? A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2(2), 362-376.

Lang, A. (2006). Using the limited capacity model of motivated mediated message processing to design effective cancer communication messages. *Journal of Communication,* 56(s1), S57-S80.

Lanzetta, J. T. & Englis, B. G. (1989). Expectation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nd their effects on observers' vicarious emotional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4), 543-554.

Lanzoni, S. (2018). *Empathy: A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awrence, E. 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 David, A. S. (2004).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34(5), 911-920.

Lazarus, R.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4), 352-367.

Linville, P. W., Fischer, G. W., & Yoon, C. (1996). Perceived covariation among the featur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The outgroup covaria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21-436.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이동근 역(2013), 『여론』, 서울: 아카넷.

Liviatan, I., Trope, Y., & Liberman, N. (2008). Interpersonal similarity as a social distance dimension: Implications for perception of others'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5), 1256-1269.

Mahtani, M. (2008). Racializing the audience: Immigrant perceptions of mainstream Canadian english language TV new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3(4), 639-660.

Marger, M. N. (1994). *Race and Ethnic Relations* (3rd ed.). Belmont, CA: Wadsworth.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Vol. 11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4), 525-543.

McFarland, S. G. (2010).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and other roots of generalized prejudice. *Political Psychology,* 31, 453-477.

McKown, C. (2005). Applying ecological theory to advance the science and practice of school-based prejudice reduction interven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40(3), 177-189.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Mutz, D. C.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양승찬 역(2000), 『미디어 정치 효과: 비개인적 영향력』, 서울: 한나래.

Nicol, A. A. & Rounding, K. (2013). Alienation and empathy as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sex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3), 294-299.

Nieto, S. (2017). Re-imagining multicultural education: New visions, new possibilities.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9(1), 1-10.

Northup, T. (2010). Is everyone a little bit racist? Exploring cultivation using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26(1), 29-41.

Pain, E. A. (2007). Xenophobia and ethnopolitical extremism in post-soviet Russia: Dynamics and growth factors. *Nationalities Papers*, 35(5), 895-911.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문현아 역(2009), 『세계화의 하인들』, 서울: 여이연.

Paluck, E. L. (2009). Reducing intergroup prejudice and conflict using the media: a field experiment in Rwand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574-587.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How the New Personalized Web is Changing What We Read and How We Think*. 이정태·이현숙 역(2011), 『생각 조정자들: 당신의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위험한 집단』. 서울: 알키.

Perry, R. & Sibley, C. G. (2012). Big-five personality prospectively predic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1), 3-8.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inker, S. (2002). *The Blank Slate: The Modern Denial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Pratto, F., Liu, J. H., Levin, S., Sidanius, J., Shih, M., Bachrach, H., & Hegarty, P. (2000).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the legitimization of inequality across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3), 369-409.

Pratto, F., Sidanius, J., & Levin, S. (2006).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tergroup relations: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7(1), 271-320.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Preston, S. D. & De Waal, F. B. (2002).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5(1), 1−20.

Prinz, J. (2011). Against empathy,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49, 214−233.

Raney, A. A. (2013). The psychology of disposition−based theories of media enjoyment. In *Psychology of Entertainment* (pp. 155−168).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Rifkin, J. (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이경남 역(2010),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Romer, D., Jamieson, K. H., &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88−104.

Saeri, A. K., Iyer, A., & Louis, W. R. (2015).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predict outsiders' responses to an external group conflict: Implications for identification, anger, and collective action.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5(1), 303−332.

Scarry, E. (1996). The difficulty of imagining other people. *For Love of Country*, 98−110.

Schaller, M. & Cialdini, R. B. (1988). The economics of empathic helping: Support for a mood management mo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2), 163−181.

Scheepers, P., Gijsberts, M., & Hello, E. (2002). Religiosity and prejudice against ethnic minorities in Europe: Cross−national tests on a controversial relationship.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42−265.

Scheler, M.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조정옥 역(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Schneider, D., Adler, S. A., Beery, R., Ladson-Billings, G., Fernekes, W. R., Hartoonian, M., McFarland, M. A., Marker, G., Montgomery, M. A., Nickell, P., Tevis, C. (1994). *Expectations of Excellence: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Bulletin 89*.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1), 1-65.

Seate, A. A. & Mastro, D. (2016). Media's influence on immigration attitudes: An intergroup threat theory approach. *Communication Monographs*, 83(2), 194-213.

Segal, E. A. (2007). Social empathy: A tool to address the contradiction of working but still poor. *Families in Society*, 88(3), 333-337.

Shechter, H. & Salomon, G. (2005). Does vicarious experience of suffering affect empathy for an adversary? The effects of Israelis' visits to Auschwitz on their empathy for Palestinians. *Journal of Peace Education,* 2(2), 125-138.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 7(4), 422-445.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Ho, A. K., Sibley, C., & Duriez, B. (2013). You're inferior and not worth our concern: The interface between empathy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81(3), 313-323.

Sidanius, J. & Pratto, F. (1993). The inevitability of oppression and the dynamics of social dominance. In P. Sniderman, P. Tetlock, & E. Carmines (Eds.), *Prejudice, Politics, and the American Dilemma* (pp. 173-211).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1).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danius, J., Pratto, F., & Bobo, L. (1996). Racism, conservatism, affirmative action, and intellectual sophistication: A matter of principled conservatism or group domi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76.

Slevec, J. & Tiggemann, M. (2011). Media exposure,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in middle-aged women: A test of the sociocultural model of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4), 617-627.

Smith A.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박세봉·민경국 역 (2009), 『도덕감정론』, 서울: 비봉출판사.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Soldatova, G. (2007). Psychological mechanisms of xenophobia. *Social Science*, 38(2), 105-121.

Staub, E. & Pearlman, L. A. (2009). Reducing intergroup prejudice and conflict: A commenta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588-593.

Stotland, E. (1969). Exploratory investigations of empath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71-314.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1), 1-39.

Taras, R. (2009). Transnational xenophobia in Europe? Literary representations of contemporary fears. *The European Legacy*, 14(4), 391-407.

Taylor, S. E. (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67-85.

Thompson, S. & Bryant, J. (2002). *Fundamentals of Media Effects*. 배현석 역(2015), 『미디어 효과의 기초』, 파주: 한울아카데미.

Thomsen, L., Green, E. G., & Sidanius, J. (2008). We will hunt them down: How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fuel ethnic persecution of immigrants in fundamentally different way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6), 1455-1464.

Tovares, R. (2000). Influences on the Mexican American youth gang discourse on local television news.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 11(4), 229-246.

Tredoux, C. & Finchilescu, G. (2007). The contact hypothesis and intergroup relations 50 years o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7(4), 667-678.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Westin, C. (2003). Racism and the political right: European perspectives. In P. H. Merkl & L. Weinberg (Eds.), *Right-wing Extrem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Frank Cass.

Whitley, B. E. (1999).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126-134.

Wimmer, A. (199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0(1), 17-41.

Woo, H. J. & Dominick, J. R. (2001). Daytime television talk shows and the cultivation effect among US and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4), 598-614.

Xu, X., Zuo, X., Wang, X., & Han, S. (2009). Do you feel my pain? Racial group membership modulates empathic neural responses. *Journal of Neuroscience,* 29(26), 8525-8529.

Yakushko, O. (2009). Xenophobia: Understanding the roots and consequenc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1), 36-66.

Zahn-Waxler, C. & Hastings, P. D. (1999). Development of empathy: Adaptive and maladaptive patterns. *Moral Sensibilities and Education,* 1, 37-59.

Zick, A., Pettigrew, T. F., & Wagner, U. (2008). Ethnic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Europe. *Journal of Social Issues*, 64(2), 233-251.

Zillmann, D. (1991). Empathy: Affect from bearing witness to the emotions of others. *Responding to the screen: Reception and Reaction Processes*, 135-167.

[부록] 설문지

IRB No. 1910/003-006 **유효기간: 2020년 10월 27일**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외국인 및 이방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한 내용은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에는 15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설문 응답에 따른 **부작용이나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참여 도중에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어떤 불이익도 없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의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되며, 숫자로만 기록되어 통계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솔직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 표 해주십시오.

<사례 1>

이자스민 씨는 필리핀 출신으로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항해사로 일하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1998년 결혼했고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2010년 남편과 사별한 뒤 1남 1여를 키우고 있는 싱글 맘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완득이'에 출현한 것을 비롯해 몇 차례 방송 출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자스민 씨가 자신처럼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을 많이 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자스민 씨는 동남아에서 온 결혼이민자로만 보는 사회의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하며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자스민 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2. 이자스민 씨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된 것에 찬성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3.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4. 이자스민 의원의 국회의원 활동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사례 2>

A의 아버지는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얼마 전에 실직을 하였다. A의 아버지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월급이더라도 자기 나라와 비교했을 때에는 큰 돈이기 때문에 적은 월급을 받고도 서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월급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A는 아버지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외국인노동자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6.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와 일하는 것에 찬성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노동자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A의 생각에 찬성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8.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사례 3>

B는 텔레비전에서 보이스피싱((음성)사기전화) 피해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 우리나라로 오는 이방인 중에는 중국동포(조선족)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동포 중에는 전화를 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후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B는 그 뉴스를 보고 중국동포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람들은 중국동포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 무섭고 같이 이웃으로 지내기가 싫다며 다른 중국동포들까지도 비난하며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중국동포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중국동포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11. 중국 동포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12. 중국동포로 인해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사례 4>

이슬람 여성들은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전통의상인 차도르를 입고 다닌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때나 체육을 할 때도 항상 차도르를 입어야 한다.

C가 다니는 학교에 이슬람 여학생이 전학을 왔다. 그 학생은 항상 차도르를 입고 수업을 하며, 학교에서 발표회나 체육대회 등을 할 때도 차도르를 입는다. 어떤 친구들은 그것이 그 아이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비록 대한민국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단체 활동을 할 때조차도 자기 나라의 문화만 따르고 우리 학교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여학생이 차도르를 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에 찬성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나라에서 차도르 착용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나라에서 차도르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16.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II. 제시된 문장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외국인(이방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합법·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국제결혼이주여성, 이민자, 귀화자 등 포함), 조선족(중국 동포)을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말합니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국인(이방인)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때때로 나는 외국인(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 것인가를 상상해 봄으로써 외국인(이방인)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고 두 측면 모두를 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때때로 '다른 편'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이방인)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외국인(이방인)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 대해 일종의 보호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외국인(이방인)이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보다 불행한 외국인(이방인)을 보면 걱정스럽고 연민(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스스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때때로 문제상황에 처한 외국인(이방인)들을 보더라도 별로 마음 아프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외국인(이방인)들의 불행이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깊이 감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여러분의 이방인 관련 미디어 노출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디어'는 "TV 뉴스, TV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TV 드라마, 신문, 잡지기사, 영화,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등"을 말합니다.

1. 평소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자주 외국인 및 이방인 관련 **긍정적**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의 봉사활동, 이방인의 화목한 가정생활, 한국 사회에 대한 이방인의 문화적·사회적 기여 등)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⑤ 매우 자주 있다

2. 평소 미디어에서 외국인 및 이방인 관련 **긍정적**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편입니까?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평소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자주 외국인 및 이방인 관련 **부정적**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 (예 외국인 및 이방인에 의한 범죄, 불법 파업, 문화 충돌 등)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⑤ 매우 자주 있다

4. 평소 미디어에서 외국인 및 이방인 관련 **부정적**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편입니까?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Ⅳ. 제시된 문항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만 ✔ 표 해주십시오.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은 상위에 있고 다른 집단은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열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집단도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의 하위그룹도 상위그룹만큼 자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집단 간 평등이 우리 사회의 주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단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는 다양한 집단의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집단은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학술적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1. 학년 ① 중 1 ② 중 2 ③ 중 3 ④ 고 1

2. 성별 ① 남 ② 여

3. 종교는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4.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생활 수준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어려움 ② 조금 어려움 ③ 중간 ④ 조금 잘 산다 ⑤ 매우 잘 산다

5.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및 대학교 중퇴 ④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6. 우리나라에 거주 혹은 체류 중인 이방인과 접촉한 경험(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는 등)이 많은 편인가요?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그렇다

7.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여행을 해 본 적이 있다 ③ 외국에 체류하거나 살아본 적이 있다

♣ 모든 문항에 <u>빠짐없이</u>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Media Exposure, and Empathy on Adolescents' Xenophobia

Hwang, Miae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Lee, Mina, Ph. D.

Xenophobia, which refers to a hatred and fear of strangers or foreigners, is a social issue to be addressed and resolved for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Concurrently, it is an essential qualification for a democratic citizenship in multicultural society to contemplate upo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strangers which can surface in case of encounters as well as to seek after the ways for a peaceful coexiste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d on the xenophobia among students.

Resolving xenophobia among students is not simple as to merely restraining expressions nor behaviors of hatred towards strangers. The problem lies in the discriminatory attitudes from xenophobia itself, and an educational solution should stem from examining the psychological and structural factors that are used for ration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used social dominance theory to take a closer look at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tendency to have a desire to control out-groups, to address it as the root cause of xenophobia. Based on cultivation hypothe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a exposure that negatively and violently representing strangers as an intensifying factor of xenophobia. Further, grounding upon limitation of empathy, this study inferred that the xenophobia would be intensified due to either a limited empathy towards strangers due to in-group bias or a wrongful empathy towards prejudices reproduced by media expo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media exposure on adolescents' xenophobia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towards strangers in these relationship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20 students in 7^{th} grade to 10^{th} grade who a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from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Excluding unreliable responses, a total of 410 cases were used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SPSS for Windows (Ver. 23.0) and SPSS PROCESS Macro (Ver. 3.3) programs. For the verification of effects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media exposure on xenophobi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towards strangers, the three analysis steps approach by Baron and Kenny(1986) was adopted together with

bootstrapp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xenophobia. Second, positive portrayal of strangers from media exposure mitigated xenophobia while negative media exposure exacerbated i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xenophobia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empathy towards strangers. Specifically, the positive media exposure and xenophobia demonstrated a complete mediation. whereas the negative media exposure had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empathy towards strangers.

The findings above hav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ways of effective value education on encouraging conscience and justice should be sought after in order to overcome xenophobia fro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Further, the concept of 'us' based on open, flexible and weak ties in between mainstream groups and strangers should be highlighted in school curriculum rather than the 'us' in terms of strong ties among closed, mainstream groups. The idea of 'us' should include the strangers in our society, and only then can we make our society to allow every citizens to equally exercise their universal rights.

Second, the positive portrayal of strangers on media would be useful to alleviating xenophobia among students, especially when direct encounter with strangers and students for educational reasons is difficult or unavailable at each school. With regards to negative media exposure, incorporating multicultural education with media literacy course is suggested. In other words, within the realm of multicultural education, identifying problems and finding solutions from reviewing biased representation of strangers in the media message, and critically

reading and writing(creating) activities need to be included.

Third, in order to resolve xenophobia, it is important not only to emphasize the effectiveness of positive media exposure, but also to heighten the level of empathy towards strangers. It would be hard to expect an effective resolution to xenophobia when the education on cultivating empathy towards strangers and on multicultural education is not intertwined. Withal, students with higher level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would gravitate towards ingroups hence tend to empathize more with mainstreams, but rather find it difficult to do so with strangers which would lead to an intensified dislikes. This clearly confirms the limitation of empathy which had been neglected in many of the prior study on empath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sheds lights and casts shadows at the same time. This implies that multicultural empathy education should broaden it's spectrum from including 'strangers inclusive empathy' to considering and dealing with limitation of empathy more substantially. Multicultural empathy educa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issue of understanding and empathizing strangers but also the issue of distortion and exaggeration of such empathy.

keywords : xenophobia,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media exposure, empathy, adolescents

Student Number : 2010-30393